

석사학위논문

#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식과 행동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병 무

2010년 2월

# 氣候變化에 대한 濟州道民들의 意識과 行動

指導教授 鄭 大 然

金 炳 武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金炳武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2月

Jeju Citizens' Consciousness on and Behavior  
towards Climate Change

Byeong-Mu Kim  
(Supervised by Professor Dai-Yeun Je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표 목차>	ii
<그림 목차>	iii
【국문초록】	iv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3. 연구의 구성	5
II.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6
1. 기후변화의 개념과 원인	6
2. 기후변화의 상태	8
3. 기후변화의 대응	11
III. 이론적 고찰	15
1. 기후변화와 사회	15
2. 기후변화 의식과 행동의 정의	16
3.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 의식과 행동 연구	20
4. 기후변화 의식·행동과 소비자 성향, 환경주의의 관계	23
IV. 연구설계	27
1. 가설설정	27
2. 자료수집방법	28
3. 조사질문지 구성	29
V. 분석결과	38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	38
2. 소비자 성향과 환경주의 .....	39
3. 기후변화 인식지수 .....	46
4. 기후변화 인식지수의 관계 .....	59
<b>VI. 요약 및 결론</b> .....	67
1. 요약 .....	67
2. 결론 .....	69
<b>【참고문헌】</b> .....	72
<b>【부 록】</b> .....	77
<b>【Abstract】</b> .....	84

### <표 목차>

<표 1>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친 역사적 사례 .....	16
<표 2> 인지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	30
<표 3> 이해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	31
<표 4> 확신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	32
<표 5> 행동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	33
<표 6> 소비자 성향 척도 .....	34
<표 7> 개정 친환경패러다임 척도 .....	35
<표 8> 표본의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 .....	38
<표 9>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소비자 성향 수준에 미치는 영향 ...	40
<표 10> 소비자 성향의 요인분석 .....	42
<표 11>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환경주의 가치체계 수준에 미치는 영향 ...	44
<표 12>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요인분석 .....	45
<표 13> 기후변화 현상 인지 문항 결과 .....	46

<표 14>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인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	47
<표 15>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인지지수에 미치는 영향 .....	48
<표 16>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이해 수준에 미치는 영향 .....	50
<표 17>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이해지수에 미치는 영향 .....	51
<표 18> 개별 문항별 확신 수준 .....	53
<표 19>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의 구성 .....	53
<표 20>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 수준 .....	53
<표 21>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확신 수준에 미치는 영향 .....	54
<표 22>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확신지수에 미치는 영향 .....	54
<표 23> 개별 문항별 행동 수준 .....	56
<표 24>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	57
<표 25>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행동지수에 미치는 영향 .....	58
<표 26> 기후변화 인식지수들 간의 부분상관관계 .....	60
<표 27> 각 변인이 기후변화 인식 수준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 .....	65

### <그림 목차>

<그림 1> 일반국민의 단계별 지수 .....	4
<그림 2> 전 지구와 한반도 평균기온의 변화 .....	9
<그림 3> 2000~2100년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	10
<그림 4> 제주도 연평균기온의 변화 .....	11
<그림 5>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완화와 적응 .....	13
<그림 6>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의 4 단계 .....	21
<그림 7>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 수준 형성의 메커니즘 .....	61

## 【국문초록】

###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식과 행동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의 거의 대부분이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와 그 심각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의식과 행동이 어떠한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더 나아가 제주도민들의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기후변화의식은 환경의식의 하위 개념으로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현상의 대응 필요성을 지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정도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민들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거주지역, 직업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도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 거주지역, 성, 가구 월수입이 환경주의와 소비자 성향의 가치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보다는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미치는 영향이 더 많다.

본 연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을 제주도민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분석하였으며, 제주도민들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과 행동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문제라 함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모두 지칭해서 ‘인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또한 자연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질의 오염·파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연에 대한 오염·파괴만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의 오염이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지되었을 경우에 발생한다.

근래의 환경문제에 관한 최고의 이슈는 기후변화이다. 거의 대부분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후변화 현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지구적으로 향후 최소 30~40년간은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가속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sup>1)</sup>의 제4차 평가 보고서<sup>2)</sup>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적응(adaptation)”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IPCC, 2008).

지구적 차원의 적응노력과 정부의 적응노력은 인간 개인의 의식 전환 없이는 뚜렷한 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 환경의식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의식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 연구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의 분석과 개인의 의식 분석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래야만 올바른 현상의 분석과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활동 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기구(IPCC)’의 설립은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립했으며, 주요 활동으로 기후변화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담당 기관인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제출하고 있다.

2) IPCC 평가 보고서는 현재까지 4차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입증해 주는 보고서이다. 1990년 1차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1995년, 2001년, 2007년 총 4회에 걸쳐 발간되었다.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의식과 행동 연구는 기후변화 발생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여,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의식과 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환경주의와 소비자 성향에 따른 개인의 성향이 기후변화의 의식 및 행동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환경오염의 예방과 실천력 향상의 기반이 될 것이다. 광범위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몇 개의 문항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경영원에서 기후변화 인식지수를 개발하였다.<sup>3)</sup> 학문연구가 아닌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하였기 때문에 인식지수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거치지 않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 개인의 의식 분석에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개인의 의식에 대한 연구를 제주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한 개인의 의식을 연구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 의식조사보다 제주도라는 지역적 차원의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속성 이외에도 ‘기후변화대응 시범도(道)’라는 정책적인 가치도 있다. 제주도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시범 ‘도(道)’라는 위치를 부여받아 많은 정부 정책들이 시범 계획 중이고 현재 시행중인 정책도 많다.<sup>4)</sup>

선행 연구 자료를 보면, 환경의식의 조사에서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변인에 의한 결과만큼, 그 집단에 현재 주어진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의식반영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다(구도완 외, 2004; 조운애 2005). 따라서 제주도는 이미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일반 지역보다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기

3) 기후변화 인식지수로 전 국민 사례조사에 의한 결과는 나와 있다.

4) 제주도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 지정되면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은 기후변화영향조사 예측 및 적응모델 개발사업, 국가기후 변화대응 교육센터 설립, 기후변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대응 랜드마크 조성사업 등 총 45개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실천과제(45개)”, 2009에 작성되어 있다.

후변화의식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 조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개선 방향에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환경부 주도로 ‘기후변화 대국민 의식조사’는 2007년, 2008년 2차례 진행되었다.<sup>5)</sup> 학술연구가 아닌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조사 자료이지만 조사 결과는 기존 국내·외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조사결과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자료는 기후변화 인지 여부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인지도 결과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 인지 여부는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여부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조사한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환경부, 2007, 2008, 지속가능경영원, 2008).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연구에서 Brand(1997), Dunlap(1993, 2002), 양종희(1992, 2004), 김두식(2004, 2005), 조운애(2005) 등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1960년대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와 언론 등에서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보다는 조금 늦은 1980년대에 와서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앞서 조사된 결과들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곧바로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적 실천행위에는 시간비용을 포함한 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되기도 하며, 실천적 행위의 혜택이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외부효과로 인하여 실천적 의지가 감소되기도 한다. 실천에 따른 이러한 경제적 비용과 외부효과는 효율적인 환경정책의 개발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비용과 외부효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환경개선 행위를 보이는 집단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다(조운애, 2005).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관심이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환경문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여전히 존

5) 환경부(2007, 2008)와 지속가능경영원(2008)의 자료에 결과분석이 되어 있다.

제한다. 이것은 환경의식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서 높은 환경의식을 보인다거나 친환경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가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구도완 외, 2004).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기후변화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행위들은 행위자의 그릇된 환경의식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의식은 특정 행위에 한정되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일반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사고와 행동, 삶의 양식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후변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행동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진국립, 오순자, 고석찬, 2008).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과 태도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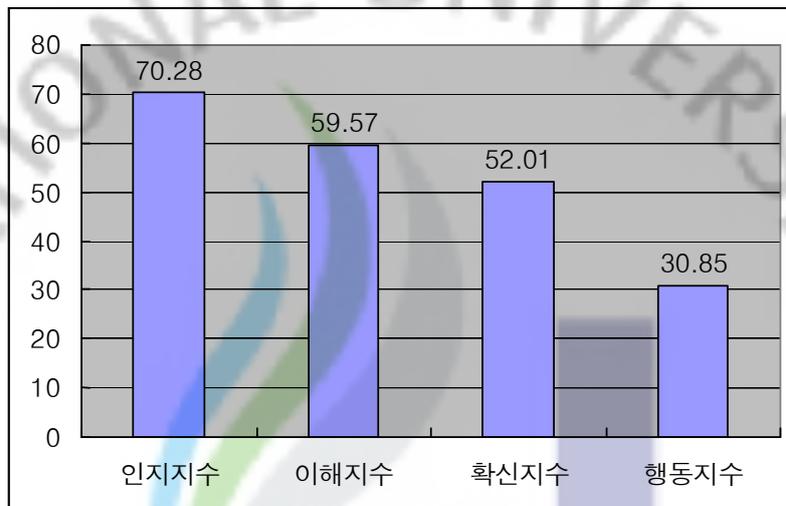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되는 기후변화 인식지수는 환경부 주도로 지속가능경영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인지단계, 이해단계, 확산단계, 행동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기후변화 현상을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인지단계”,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정도를 평가하는 “이해 단계”,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확신 단계”,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행동단계”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인식지수로 측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지수(70.28)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해지수(59.57), 확산지수(52.01), 행동지수(30.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확산지수와 행

동지수는 기준점수(60점)<sup>6)</sup>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행동지수가 확신지수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행동들이 아직까지 몸에 체화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지속가능경영원, 2008).

<그림 1> 일반국민의 단계별 지수



출처: 지속가능경영원(2008)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 조사는 일반 시민에게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한 연령, 지역,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30대 대도시 고소득층들은 높은 수준의 인지, 이해, 확신, 행동 지수를 유지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하고, 인지, 이해도는 낮으나 확신, 행동지수가 높은 여성과 서민층에게는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소득층 남성들은 인지와 이해도는 높으나 확신, 행동 지수가 낮아 행동으로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의 사회적 약자 층은 인지, 이해, 확신, 행동 지수가 모두 낮아 중점 관리해야하는 대상이다(환경부, 2008).

6) 각각의 지수의 기준점수는 지속가능경영원(2008)에서 작성한 연구의 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론도출을 위해 위와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가하여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문헌연구와 함께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에서는 국내·외 서적, 논문, 기타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증적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문항은 기후변화 인식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에 대한 항목은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방법에는 인구 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인구 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의 특성에 따른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 기후변화 인식지수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독립변인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인식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 계수를 산출하고, 이들의 관계적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구성에 대해 작성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기초 이해를 위해, 기후변화의 개념과 원인, 상태,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기후변화와 사회의 관계, 기후변화 의식과 행동의 정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 의식과 행동의 선행 연구, 기후변화 의식·행동과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의 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설계 부분으로 자료수집방법과 조사질문지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고, 5장에서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식과 행동의 결론도출을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와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II.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 1. 기후변화의 개념과 원인

#### 1) 기후변화의 개념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많은 대중들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기후(climate)란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날씨를 말한다. 날씨(weather)는 일상적인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기후는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기상현상이다(정대연, 2009). 매일 바뀌는 날씨 자료가 모여서 기후라는 통계적 평균 개념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후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기상현상이 일반화된 상태를 말한다.<sup>7)</sup>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시간적으로도 지속적인 변화 중에 있다.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시간적 차원에서 어떤 원인들에 의한 변화를 의미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동일한 지역에서 장기적인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차이를 말한다.

IPCC는 기후변화를 “장기간에 걸친 기간(수 십년 또는 그 이상) 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sup>8)</sup>으로 정의 하였다. UNFCCC의 기후변화기본협약에서 말하는 기후변화란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sup>9)</sup>라고 규정하고 있다(IPCC, 2008).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란 “지구

7) 인간은 기후 변화를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여 왔지만 정량적 평가가 가능해진 것은 최근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와 지구표면 및 대기가 에너지를 반사, 흡수, 배출하는 관계에서 결정된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궤도의 변동 등으로 인한 태양 에너지 입사량의 변화는 지구의 에너지 수지에 영향을 주어 기후변화를 유발하게 된다(IPCC, 2007).

8)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동(variability)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9) UNFCCC는 대기조성을 변경시키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주로 자연적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기후변동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인간 행위에 의한 기후변화”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온난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구 전체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원인과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요약하였다.

## 2) 기후변화의 발생원인

산업화 이후 250여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인간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직도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산업화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풍요성과 편리성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의 사회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하지만 인간 중심의 기술개발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켜 환경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문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한 수많은 협약과 대응 방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다. 자연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태양 에너지의 변화, 궤도 변화(밀란코비치 주기), 화산폭발에 의한 태양에너지 변화가 있다. 태양 에너지의 변화는 태양 흑점수의 변화에 따른 태양 복사에너지량의 변화를 말한다. 유럽, 북미 대륙의 경우, 흑점이 많은 기간에는 온도가 낮았고, 반대로 흑점이 적은 기간에는 온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궤도 변화는 지구공전궤도의 변화, 자전축의 경사 변화,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에 의한 태양-지구 간 근일점의 변화가 있다. 화산폭발에 의한 태양에너지 변화는 화산분출물이 성층권까지 상승하여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머물며 태양빛을 흡수하여 성층권 온도는 상승하나 대류권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감소되어 대류권 온도가 하강하는 것을 말한다(기상청, 2009).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론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하지만 대체적으로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난화물질의 배출’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선진국들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과잉 살포된 질소비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신흥 개발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환경부, 2007;2008; 지속가능경영원, 2008).

IPCC 보고서(2008)에 정리된 기후변화의 원인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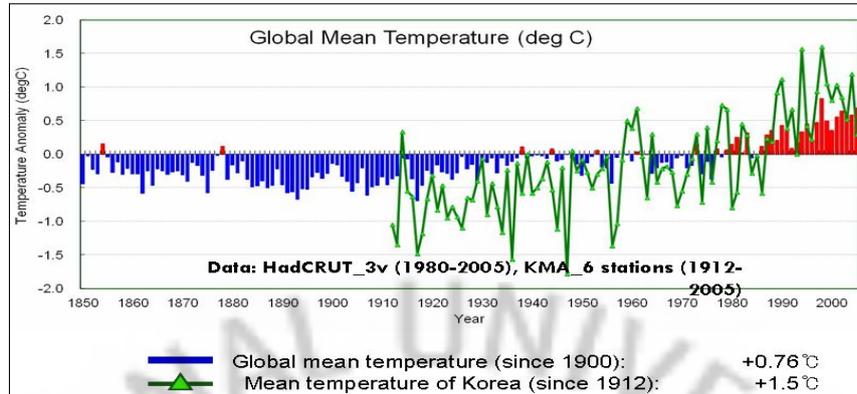
- 전 산업시대 이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난화물질이 배출되었고, 1970년부터 2004년 사이 온난화물질이 70% 증가하였다.
- 온난화물질 가운데 CO<sub>2</sub>가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
- CO<sub>2</sub>, CH<sub>4</sub>, N<sub>2</sub>O의 대기 농축도는 1975년 이후의 인간 활동의 한 결과다.
- 20세기 중반 이후 관찰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주로 지난 50년 동안 상승되었다.
- 상승된 온도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후의 다른 측면에 또 다른 영향을 준다.

## 2. 기후변화의 상태

### 1) 전지구적 차원

산업화로 인해 20세기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전 세계 평균기온과 해수면의 상승 등이 관측되고 있다.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년 대비 2004년 약 70% 증가하였으며, 20세기 중반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주로 지난 50년 동안 상승되었다. 1850년 이후 1995년~2006년까지 11년 동안 지구 표면온도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측정 기록에 의하면 1860년 이후로 지구 평균 기온이 0.3~0.6℃ 정도 온난화 되었다. 또한 지구온도는 1990년~2100년 사이 1.1~6.4℃의 온도상승이 예측된다. 해양의 최상층이 따뜻해짐에 따라 물은 점점 팽창하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은 1961년~2003년 동안 매년 1.8mm씩 상승하여 평균 해수면은 10~25cm로 상승했고, 금세기말까지 최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모델은 0.3~0.6℃ 정도의 온난화가 해수면을 10~25cm 상승시킬 것이라고 암시한다(IPCC, 2007,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002).

<그림 2> 전 지구와 한반도 평균기온의 변화



\* 출처: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2008)

최근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례적인 기상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동식물의 행태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생태계가 이미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IPCC 4차 보고서는 최근 온난화가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빙하와 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보고하였다. 2만 9천여 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측된 변화의 약 90%가 기후변화와 일치한다고 결론지었다. 단일 극단 기상현상을 가지고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관측된 기온과 대기 구성의 변화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지구의 기상패턴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짓게 하였다. 동물과 식물 행태 학자들은 생태계도 이미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Kirstin Dow, Thomas E. Downing, 2006).<sup>10)</sup>

기후변화는 21세기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할 것이다.<sup>11)</sup> 지난 50년 동안 추운 낮과 밤의 날, 서리가 내린 날이 줄었고, 대신 더운 낮과 밤은 증가하였다. 20세기 중반 동안 북극의 기온도 지난 50년 보다 증가하였고, 기온은 지난 1,300년 동안 최고로 높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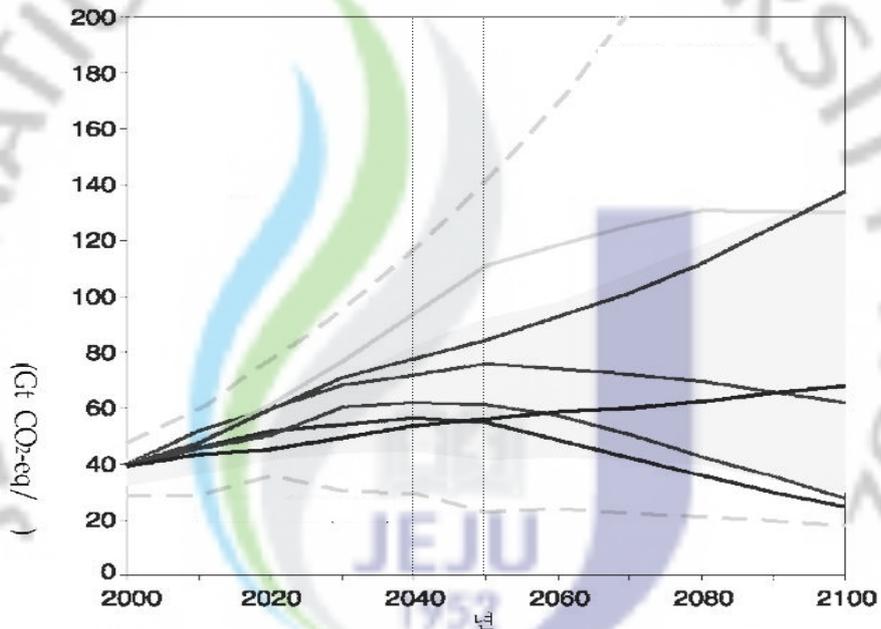
10) Dow Kirstin · Thomas E. Downing(2006)의 참고자료에는 극의 변화, 빙하의 후퇴, 빈번한 극한 기상 출현 등을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11) 한반도의 기후변화 상태는 지난 100년간(1906~2005년) 6대도시 평균 기온은 약 1.5°C 상승하였으며 해수면은 40년간 22cm 상승(세계평균 매년 1.8mm)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40년간(1968~2005년) 한반도 연해 수온이 0.9°C 상승하여 어획어종이 명태 등 한류성 어종에서 오징어, 고등어 등 난류성 어종으로 변동되어 수산자원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과 영향이 곳곳에서 실제 관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래 기후변화는 전 지구수준과 유사하게 예측되고 영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제주발전연구원, 2009)

다.

관찰된 증거에 의하면, IPCC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이와 연관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집행한다고 해도 앞으로 30~40년 동안은 온난화물질 배출이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온난화물질은 현재보다 증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계속 작용하여 21세기 동안은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IPCC, 2008).

<그림 3> 2000 ~ 2100년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고: 각 시나리오별 자세한 사항은 IPCC 4차 보고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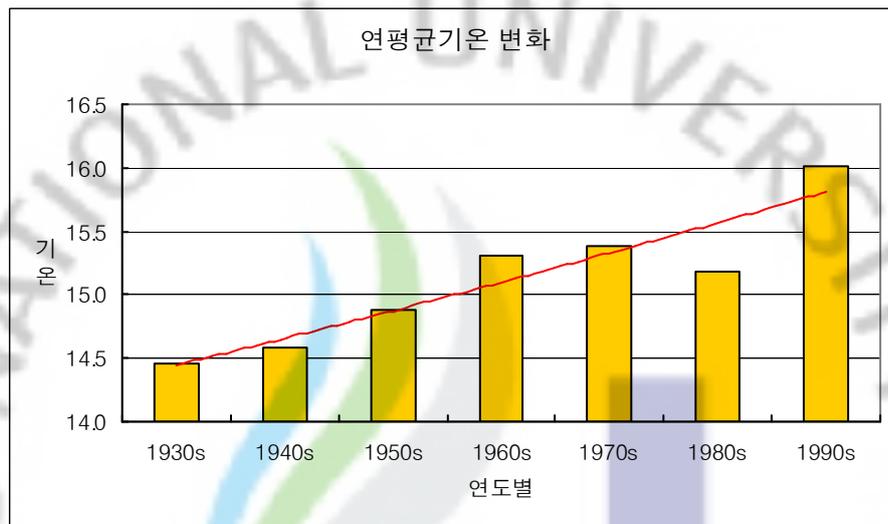
\* 출처: IPCC(2008)

## 2) 제주도

제주도의 기온 변화는 평균 1.8℃ 상승하였다. 겨울철과 봄철 최저기온은 상승하였으나 여름철은 기온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봄철은 약 2℃상승, 여름철은 1℃상승, 가을철은 1.5℃상승, 겨울철은 1.8℃상승 하였다. 강수패턴의 변화는 강수량은 1,360mm에서 1,500mm를 넘어서고 있고, 강수일수는 최근 20년이 가장 적었다. 연강수량과 강수강도는 같은 기간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면서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였다. 제주도의 자연계절은 겨울이 36일, 가을이 4일 짧아졌다. 반면 봄은 10일, 여름은 30일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서리일과 난방일은 감소하였고, 냉방일과 열대야는 증가하는 등, 아열대기후의 확장이 나타나는데, 일부 산간지역과 한라산을 제외하면 이미 아열대기후이다(제주도, 2008).

<그림 4> 제주도 연평균기온의 변화



\*출처: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2008)

제주도는 기상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대부분의 태풍이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순간최대풍속 극값 기록, 2007년 태풍 나리에 의한 일강수량 최고 기록 경신 등 기후변화에 따른 악기상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장마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해지고 장마 기간 후 많은 강수를 기록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9).

### 3. 기후변화의 대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1972년 제27차 유엔 회의에서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계기로 국제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황기아, 천재은, 2004).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는 물론 다른 생물종의 생존을 좌우하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로 부상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1979년 제1차 세계 기후회의(WCC)에서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1980년대 말과 1990년 초에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간 회의가 수 차례 개최되었다(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002).<sup>12)</sup>

1992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전지구적 속성상 지구 구성원 모두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위기의식을 기초로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일차적 책임자인 선진국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감축 목표치와 감축시기를 설정한 교토의정서<sup>13)</sup>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지 8년만인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윤순진, 2007).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교토의정서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금세기 동안 기후변화가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 최근 EU에서 금세기말 온도상승 2°C 제한 주장이 나오면서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설정 등이 주요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국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데는 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는 당장 축적된 온실가스가 원인이 되어 초래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IPCC의 예견대로, 결국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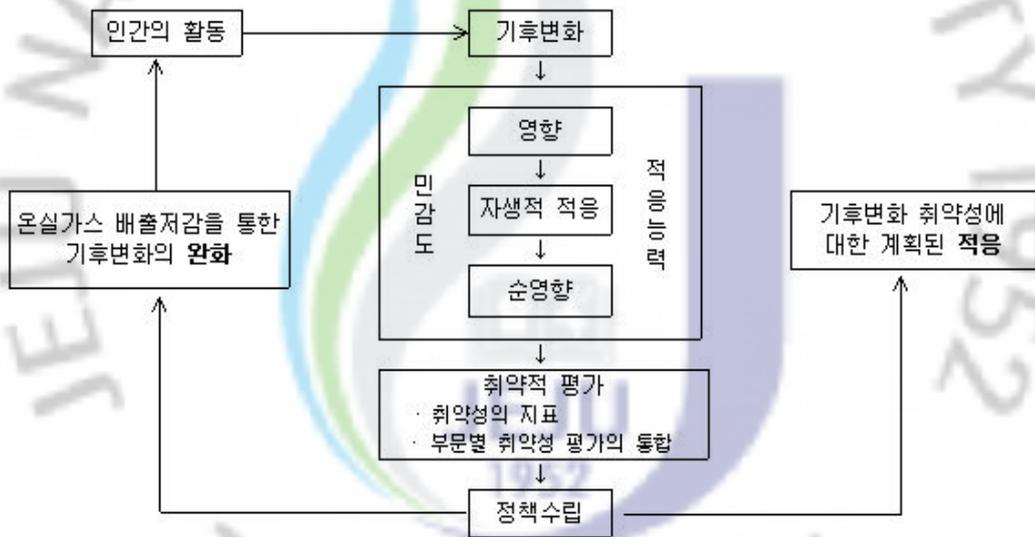
12) 이러한 회의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회의에서는 정책결정자, 과학자, 환경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과학적 문제와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고 범세계적인 차원의 실천을 요구했다.

13)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최초의 논의이다. 전체적으로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이내에 1990년 배출 수준의 약 5% 정도를 감축해야 하며 감축량은 2008~2012년 간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이행사항과 규칙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신의순, 김호석, 2005).

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소 30~40년간은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가속화의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제주도, 200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온실가스의 배출저감과 흡수원 확대가 주요내용인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 영향의 취약성을 줄이기 적절한 계획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sup>14)</sup>이다. 완화와 적응은 상호연관성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후변화 완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들을 회피, 저감 또는 지연시키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적응대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9).

<그림 5>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완화와 적응



\*출처: 제주발전연구원(2009)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의식과 행동연구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사회의 계획을 반영하여 정부가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더라도 각 개인이 활동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완화의 노력은 성공하기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또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

14) 적응 : 실제 혹은 예측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 하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말한다.

라서 기후변화 대응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모두 반영하여 이루어 져야 하며, 대응 주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되어야 한다.



### III. 이론적 고찰

#### 1. 기후변화와 사회

환경사회학은 환경과 사회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자연과학적 사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응용되고 해석되면서 관계를 맺는다. 기후변화라는 자연환경분야의 과학적 사실도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다(김동주, 2008). 기후변화의식 연구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행동하게 되는 관계를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다. 기후변화 현상을 환경문제로 인식했을 때,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의 분석은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활동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의 활동은 사회·경제적인 활동 이외에 인구의 자연 증감까지도 포함한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주는 영향은 극히 미비하여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인간의 활동은 자연의 자연정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환경과 사회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사회학의 역할일 것이다. 인간은 자연환경이라는 태두리 안에서 삶을 유지하지만 인간의 존재양식이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산업혁명으로 인간은 자연환경의 정화능력 범위를 초월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한정 발휘될 수만은 없다. 현재 나타나는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가 대표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라는 현상이 자연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인간에 의한 영향이었으며, 이것은 또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사회학의 분야이고, 현재까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환경결정론, 환경가능론, 환경개연론, 환경의 사회구성론 등으로 이론화 되어있다(정대연, 2002).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의 원인은 대체로 인간의 활동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러한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기후변화의 결과는 도리어 인간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다. 물론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아니어도,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2>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친 역사적 사례

- ① 화산폭발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
- ② 빙하기, 간빙기 등 기후변화가 민족 대이동을 일으켰다.
- ③ 갑자기 닥친 지구한랭 2기가 신원인(新猿人),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낳게 한 진화의 계기가 되었다.
- ④ 기원전 500년~400년, 기후변화는 바람과 습기의 흐름에 변동을 일으켜 유럽의 기온저하를 가져왔고, 그것은 북방 청동시대의 종말과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럽 동남부 쪽으로 내려간 게르만족 이동(침입)의 원인이 되었다.

\*출처: 김동주(2008)

이처럼 기후변화와 사회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인간의 활동이 결정되느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하느냐의 분석은 추후에 남겨진 과제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 2. 기후변화 의식과 행동의 정의

기후변화 의식과 행동에 대한 정의는 대범주인 환경의식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였다. 환경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환경을 구분해야 한다. 자연은 단독개념이고, 환경은 관계적 개념이다. 관계적 개념에는 주체와 객체가 있다. 환경은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객체로서, 주체에게 영향을 주고, 그 주체는 인

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을 환경의 주체로 보고 있다. 인간을 주체로 할 때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인간의 존재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모두 인간의 환경이다(정대연, 2002).

의식이란 느낌, 생각, 또는 행동에서 깨우쳐지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사태, 제도, 사상, 가치현상과 같은 심리적인 대상에 대하여 방향이 결정되는 감정적인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유두련·심미영·정경옥, 1996). 주체와 관련하여, 의식의 특성을 언급한다면, 첫째 의식은 행동을 구성하며, 앞으로 지향(intention)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이 방향성과 목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극한에서 (현상학적으로) 목적성과 총체성을 추구한다고들 한다. 둘째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식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선택(selection)이라고 한다. 습관에 의한 행위가 잘 안될 때, 주저하며 암중모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셋째로, 의식의 능력은 어떤 행위에서든지, 무기력하게 손해를 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한다. 즉 행위 하는 것은 의식이 대하는 사실들을 끌어 모으고, 자신에 맞게 종합(synthèse)한다. 이런 의식의 종합하는 능력이 주체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으로 의식 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면서도, 그 행동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합목적성과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행동한다는 것이다(류종렬, 2001). 의식의 연구는 위와 같은 것을 기반으로 행위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다행히도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의식의 연구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태도의 선택(두 번째)과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세 번째),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이끌려 행하게 되는 행동(네 번째)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의식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가 환경의식의 측정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위와 같이 다양하다. 먼저, 환경의식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환경에 대한 태도,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보존태도 등 다양하게 사용한다. 환경의식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관점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환경의식이란 환경에 대한 생각과 관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독일 환경 설명서에는 환경의식에 대해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조건의 손실을 도울 수 있는 준비 자세와 관련한 입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조운애(2005)는 환경의식이란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 친환경적 행위의 실천 혹은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 등 어느 일면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실천 없는 관심만으로 환경의식이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외부효과나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한 소극적 실천에 대해서도 환경의식이 낮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의식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 혹은 그것의 해결에 대한 개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적하는 정도(Dunlap and Jones, 2002)”를 의미한다. 또한 환경의식이란 작은 개념의 환경의식, 즉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 등이 어우러져 구성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조운애, 김경환 2003). 따라서 환경의식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작용, 특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개념인 의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양종희(1993)는 환경의식의 연구를 일반국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환경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일반 공중의 환경주의적 태도가 일관성 있게 형성되었는지, 정교하게 분화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태도가 환경관련 행동을 유발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의식과 환경운동에 비해서 개인적 환경행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Brand의 환경행동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는 환경의식과 행동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환경의식연구의 많은 문제가 환경의식의 상이한 조작에서 나온다. 그러한 조작화는 지식·태도·약속·가치·심성·환경의식의 위계적 관계 등 상이한 변수의 측정으로 나타난다.

둘째, 환경지식·환경의식·환경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은 고도의 환경지식이 환경의식을 낳고, 환경의식이 환경행동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많은 연구가 환경의식과 환경행동 간에 격차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셋째, 환경의식과 환경행동이 환경지식이나 환경정보에서 유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다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심리학에서는 가치, 인지된 행동의 결과, 책임의 귀속이나 통제 같은 매개변인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공동선의 딜레마와 환경행동에 따르는 개인적 비용과 혜택 간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경험적 연구결과를 보면 개인적 가치, 상황적 맥락, 하부구조적 결핍, 경제적 유인이 지식, 감정이나 태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많은 연구가 환경과 관련된 행동이 동질적인 유형이라기보다는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환경행동은 행동에 큰 변동을 초래하지 않거나, 상당한 불편이 없고, 특수한 부가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낮은 비용상황에서 실현된다고 한다. 즉 환경행동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비용, 시간노력, 불편함과 같은 일상생활의 장애요인과 문화적 습관과 가치선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환경행동의 집단간 차이를 보면, 환경행동에 참여하는 핵심적 집단으로, 젊고, 도시에 살고,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혹은 사회적·지적·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신중간계급의 탈물질주의자들이 환경행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는 것이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환경적 쟁점의 제도화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주의와 환경행동이 사회집단 전체에 퍼졌다. 그러므로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환경의식이나 환경행동을 예측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구도완 외, 2004에서 재인용).

Brand의 환경행동에 대한 결론에서는 몇 가지의 논란거리가 있다. 먼저, 환경의식과 행동 연구의 관계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환경의식이 성장하였다고 해서 환경행동으로 나타나는 인과관계가 항상 성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교육과 정책의 측면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이것을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기아 외, 2004). 다음으로, 환경의식이 높아져서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의식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

타난 현상일 뿐 여전히 그러한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환경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사례는 많다(김두식, 1995; 양종희 2004; 한상진, 2002; 조윤애, 2005). 브란트의 연구는 환경행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많은 성과가 있지만, 그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셋째, 부분에 제시된 내용이다. 의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각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환경의식과 환경행동은 위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나름의 이론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의식에 대한 정의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환경의식의 정의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식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기후변화의식이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현상의 대응 필요성을 지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정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의식에는 의식과 더불어서 태도를 반영한 행동의 개념까지 포함하였다.

### 3.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 의식과 행동 연구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기후변화의식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환경의식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 주도로 기후변화의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속가능경영원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인식지수’가 있다. 기후변화의식 관련한 국외의 연구는 기후변화인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로 CASA(Clean Air Strategic Alliance)의 CCPT(Climate Change Project Team)(2000)가 있다. CCPT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인지, 실천행동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지속가능경영원, 2008). 기후변화의식 또한 환경의식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나 관점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식에 관한 선

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환경의식에 대한 연구를 기후변화의식과 행동 연구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Murch의 사회적 상황에 따른 의식의 4 단계를 보면: 첫째, 상태의 간단한 감지, 둘째, 상황의 문제화, 셋째, 문제에 대한 원인과 상황을 확신, 넷째,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홍임순, 1993에서 재인용). 1970~1980년대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의식의 연구에서 첫째 단계인 상태 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인지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높은 의식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그림 6>과 같이 의식의 범주를 4 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단계별 순차적 진행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6>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의 4 단계



환경의식에 대한 연구는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환경의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은 나이, 성별, 교육수준, 소득, 거주지 등인데,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여자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에 거주할수록 환경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구학적 변수들이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상충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조운애, 2005).

앞서 진행된 기존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주의 가치의식이 높으며, 연령은 기성세대보다 젊은세대에서 높은 환경주의 의식이 나타난다. 계층에 따른 연구결과에서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환경주의 가치의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신중간 계급에서 높은 환경의식이 나타나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것은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가, 준전문가, 지식노동자 등이 환경의식이 가장 높고, 환경운동에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Morrison and Dunlap, 1986). 종교에 따라서도 환경의식은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기독교는 불교에 비해서 자연지배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정대연, 2002). 정치적 이념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환경주의 가치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두식, 199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항상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사 대상자들이 처해있는 특수한 사회환경에 대한 결과 반영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환경의식에 대한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환경의식 척도이다. 척도는 사회현상의 질적인 부분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척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은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 것이다. 환경의식의 척도에 대한 관심은 Dunlap and Van Liere(1978)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들 역시 인구학적 변수들의 미흡한 설명력의 원인을 연구자들마다 달리 구성하고 있는 환경의식 척도에서 찾았으며, 자신들의 New Environmental Paradigm(NEP)이라는 환경의식 척도에 대하여 모든 인구학적 변수들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짐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이어, Weigel and Weigel(1978)은 Environmental Concern(EC) 척도를, 그리고 Stern et al.(1993)은 Awareness of Consequences(AC) 척도를 제시하였으나 지금까지 합의된 환경의식 척도는 없는 실정이다(조윤애, 200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환경의식에 대한 연구가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지, 태도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등(구도완, 1999a; 김두식, 1995; 양인숙 외, 2006; 양종희, 1992; 정대연 외, 2005; 조윤애, 2005; 홍임순, 1993; 황기아 외, 2004; Dunlap, 1993, 2002)에 관심을 가지고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던 것처럼, 기후변화 현상도 환경문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의식의 연구는 동일하다. 앞선 연구논문들에 따르면 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어느 한 분야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전 국

민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의 모든 구성원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양식이 생활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현상 의식의 연구도 다양한 사회·경제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함께 인구통계적 변수를 고려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의식과 행동은 일치해야 하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에서는 의식은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통계적 변수에 의해 의식은 높지만 행동이 미비한 구성원들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Rock는 환경의식의 초점을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생태계에 대한 양심으로의 확대”로 강조하고 있다(홍임순, 1993에서 재인용).

#### 4. 기후변화 의식·행동과 소비자 성향, 환경주의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행동과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성향과 환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소비자 성향과 환경주의는 상호 대립되는 가치체계로서 기후변화 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성향의 개념을 알아보면, 소비는 재화와 용역을 선택하고, 구매·사용·폐기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각 개인의 삶의 양식은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소비와 관련된 이론은 경제학 뿐만 아니라 사회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소비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 및 사용이라는 경제적 현상 이상의 현상이고, 소비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체계가 문화적 이념으로서의 소비자 성향이다. 소비자 성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성보다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재화와 용역을 더 많이 소비하게끔 하는 문화적 요구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 성향은 재화와 용역의 사용에 대한 개인의 필요성, 광고전략 등의 자본주의 사회구

조, 소비문화 일반 간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체계이다. 따라서 소비자 성향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이상, 사회적 가치, 남들과의 사회 과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잘못된 가치체계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 압력에 대한 합리적 반응이다(정대연, 2004). 따라서 소비자 성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것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

또한 소비자 성향은 물질주의 성향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Mukerji(1983)는 물질주의란 재화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다른 사회적 목표를 초월하는 문화적 체계라고 하였으며, 혹은 “돈을 버는 것과 지출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마음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물질주의를 소비자가 현세적 소유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물질주의가 고도에 달하면, 이러한 소유가 한 개인의 삶의 중심이 되고, 직·간접으로 생의 만족·불만족의 큰 원천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물질주의 개념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지만 대체로 소비에 바탕을 두려고 하는 물질주의의 본질적인 경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박현희, 오송대, 2005). 소비자 성향은 물질주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생활패턴이 소비가 주목적이 되는 삶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성향은 가치판단의 의미 보다는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생활양식의 한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간단하게 소비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가치(value), 태도(attitude), 믿음(belief)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성향은 소비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 성향은 소비자의 환경의식적인 행동을 배제한 개념이다. 소비의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인식하고 개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의 복지까지 고려하는 소비를 환경의식적 소비라고 하며, 제품의 구매단계, 사용단계, 처리단계에서 모두 나타난다. 즉 소비자의 환경의식적 행동이란 구매, 사용, 폐기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쓰레기를 적게 방출하며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소비자 행동을 말한다(성영애, 2005). 소비자의 환경의식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 소비 성향에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영향을 주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성향은 환경의식을 배제한 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에서 살펴보는 환경주의와 그 행동 간의 관계에서 극에 위치한 가치체계 모형이 될 수 있다.

환경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가치체계이다. 자연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풍요성과 편리성을 추구한 결과 자연이 황폐화되고, 자연의 황폐화로 인간의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갈구하는 문화적 풍토이다(정대연, 2004). 환경주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환경주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탈물질주의이다. 1950년대 이전까지는 물질적 풍요를 위한 생활양식과 의식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기성 세대가 물질적 풍요를 이루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여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서서히 대두하기 시작하는 1900년대 중·후반의 선진국에서다. 탈물질주의는 세대를 거쳐 변화하는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환경주의는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현 세대들과 결합하여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환경주의가 연관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탈물질주의에 의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어떤 가치관에 대해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여러 요인들에 의해 가치관은 형성되는 것이지만, 환경주의에 대한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김두식, 2005). 이처럼 환경주의는 물질의 풍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저개발국에서도 환경을 중시하고 환경에 관심을 갖는 풍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환경주의의 질의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보통 경제발전은 환경에 우선시 되는 가치체계이다. 따라서 물질의 풍요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경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환경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치체계이다. 탈근대사회에서 환경위기에 대한 우려의 증가로 탈물질주의와 친환경패러다임 가치가 대두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환경의 가치를 강조하고 친환경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문화적 요구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면 환경주의는 생태학에 기초하고 있는 이념을 총칭하는 의미

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미, 혹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의미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주의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일련의 신념이면서, 또한 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정대연, 2004).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과 행동은 환경주의와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환경주의의 세부 하위항목으로서 환경주의에 대한 관심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환경문제를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을 했을 경우에 환경주의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를 환경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 의식은 환경주의와 별개의 자연 현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환경주의와의 관계분석은 유의미할 것이다. 환경주의는 높지만,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에는 기후변화 현상은 환경문제가 아닌 자연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대로 환경주의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을 경우에는 환경주의는 기후변화 현상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주의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을 연구하는데, 매개변인으로서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환경주의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관계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결과도출이 될 것이다.

## IV. 연구설계

### 1.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선 이론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의 결과, 대체적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여자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에 거주할수록 환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도출 될 것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매개변인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지수들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의식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식과 행동은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제주도민들의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도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지수들 간에는 상호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 자료수집방법

### 1) 표본의 크기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20세 이상의 제주 도민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개 시(제주시, 서귀포시)와 2개 군(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구성된 4개 시·군에서, 군을 시에 통합한 2개 시(제주시, 서귀포시)로 행정구역이 개편 되었다. 원래의 제주시 19개 동에 북제주군의 7개 읍·면이 통합되어 제주시(19개 동, 7개 읍·면)가 되었고, 서귀포시 12개 동에 남제주군의 5개 읍·면이 통합되어 서귀포시(12개 동, 5개 읍·면)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舊)북제주군과 구(舊)남제주군의 4개 시·군으로 나누어 따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08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56만 618명(외국인 제외)이고, 20세 이상은 41만 2,089명이다. 이 가운데 제주시 거주자가 54.0%이고, 서귀포시 거주자가 15.2%, 구(舊)북제주군 거주자가 17.6%, 구(舊)남제주군 거주자가 13.2%이다. 모집단 41만 2,089명 가운데 3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300명의 표본은 95% 신뢰도 수준에서 표집오차(sampling error)가  $\pm 5.66\%$ 이다.

### 2) 표본추출방법

300명의 표본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역, 연령 및 성별 인구수에 기초한 할당표집으로 추출하였다.

① 첫 번째 단계: 300명의 표본을 제주시, 서귀포시, 구(舊)북제주군 및 구(舊)남제주군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지역에 할당하였다. 그 결과 제주시에 166명이 할당 되었고, 서귀포시에 46명, 구(舊)북제주군에 50명, 구(舊)남제주군에 38명이 할당 되었다.

② 두 번째 단계: 네 지역에 할당된 표본 수는 다시 각 지역의 하위 행정단위인 동(읍·명)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였다. 제주시(19개 동)와 서귀포시(12개 동)는 전체 동 모두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본 수를 할당하였고, 구(舊)북제주군과 구(舊)남제주군은 전체 읍·면 모두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본 수를 할당하였

다. 구(舊)북제주군의 추자면과 우도면은 각각 한림읍과 구좌읍 인구에 편입하여 표본 수를 계산하였다.

③ 세 번째 단계: 최종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동과 읍·면에 할당 된 표본 수는 다시 각 동(읍·면)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성과 연령별로 할당하였다.

### 3) 현지조사

면접원을 선발하여 최종 조사지역에서 할당된 성과 연령의 조건을 갖춘 응답자를 찾아 부록에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개별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2009년 10월 26일에서 11월 9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다.

300명의 할당표집에 기초한 응답자를 찾아 면접을 시도하였을 때, 최초 시도에서 응답을 거절한 사람이 69명이었다. 이것은 완성된 300명의 면접에 기초하면 응답거절율이 23%이었음을 의미한다.

## 3. 조사질문지 구성

### 1) 인지

기후변화라는 이슈에 대하여 인지하는 단계. 인지지수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인지 수준이다. 인지를 의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의식의 범위에 인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왔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를 가지고 인지수준으로 판단하기엔 문제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내용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들어본 적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상에 대한 인지수준(“기후변화현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을 5점 척도로 측정한다.

<표 3> 인지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개념	○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여부와 인지 정도를 측정
측정항목	○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여부 -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습니까?(예/아니오) ○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 -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5점 척도)
산출방법	○ 현상인지율(인지 정도 측정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출처: 지속가능경영원(2008)

## 2) 이해

기후변화의 원인, 결과, 대응노력에 대하여 이해하는 단계. 이해지수의 개념은 구성원들이 기후변화현상에 대한 원인, 결과, 정부와 국제사회 노력들(대응 노력)에 대한 이해 수준을 종합한 것이다. 즉, 각 구성원들이 기후변화의 원인, 결과, 대응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 현상의 원인, 결과, 대응 노력에 대한 각각의 4 문항들의 응답은 모두 ‘예/아니오’의 2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범주별 4 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빈도가 그 범주의 점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지수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원인, 결과, 대응 노력의 각 범주별 문항의 빈도를 종합하고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표 4> 이해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개념	o 기후변화의 원인, 결과, 온난화 방지 노력에 대한 이해 수준을 측정
측정항목	<b>원인</b> o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수준을 측정(예/아니오) -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과다사용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미흡한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 열대우림 파괴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 도시화와 산업화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b>결과</b> o 기후변화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예/아니오)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지역이 침수되고 있다 - 기후변화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 기후변화로 말라리아 등 전염병 발생이 늘고 있다 - 기후변화로 자연생태가 파괴되고 있다
	<b>대응</b> o 정부와 국제사회의 온난화 방지노력에 대한 이해수준(예/아니오) -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 -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 - 에너지절약 마크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
조정률	o <b>조정률 = (조정률1 + 조정률2)/2</b> - 조정률1.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겨울이 얼마나 짧아졌다고 알고계십니까? 0~7일: 50% 적용, 8~15일: 75% 적용, 16~23일: 80% 적용, 24일 이상: 100% 적용, 모르겠다: 제외 - 조정률2.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몇도 정도 상승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0~0.6도: 50% 적용, 0.7~1.2도: 75% 적용, 1.3~1.8도: 100% 적용, 1.8도 이상: 80% 적용, 모르겠다: 제외
산출방법	o <b>이해지수 = (원인지수 + 결과지수 + 대응지수)/3 * 조정률</b> - 원인지수 = 열거된 선택항목 중 선택한 항목 수에 따라 점수부여 - 결과지수 = 열거된 선택항목 중 선택한 항목 수에 따라 점수부여 - 대응지수 = 열거된 선택항목 중 선택한 항목 수에 따라 점수부여

\*출처: 지속가능경영원(2008)

### 3) 확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확산지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행동양식의 필요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세부적인 실천 행동양식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동양식들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사회, 정책, 정치 참여부문)을 포함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의 문항을 만들었으며, 문항에 대한 측정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에 대한 평균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조정률을 적용하여 확신지수를 산출하였다.

<표 5> 확신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개인참여)과 민주시민으로서 행동양식(사회/정치/정책참여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측정</li> <li>○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관심을 측정</li> </ul>																		
측정항목 (5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가스버스나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li> <li>- 일반 가정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li> <li>- 고효율의 전자제품의 구입 및 교체</li> <li>-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li> <li>- 선거에서 환경공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후보의 지지</li> <li>- 탄소세 도입과 같은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인정</li> </ul>																		
조정률	<p>○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의 정도(5점 척도로 질문)</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혀 관심없다</td> <td colspan="4"></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우 관심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r> </table>	전혀 관심없다					매우 관심있다	1	2	3	4	5		20%	40%	60%	80%	100%	
전혀 관심없다					매우 관심있다														
1	2	3	4	5															
20%	40%	60%	80%	100%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문항의 평균치의 합/6) * 조정률</li> <li>- 위식을 100점 만점으로 재환산</li> </ul>																		

\*출처: 지속가능경영원(2008)

#### 4) 행동

실제 생활에서의 대응방안을 실천하는 단계. 행동지수는 확신지수에서 제시된 행동양식들의 실천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응답자의 관련 항목에 대한 행동 현황을 측정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확신단계에서 사용된 항목들과 동일하다. 확신단계에선 각 항목에 대한 필요성을 측정하였다면, 행동단계에선 각 항목에 대한 실천 정도를 측정한다.

<표 6> 행동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개념	o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양식의 실천수준에 대한 파악
측정항목	o 확산단계에서 개발된 행동양식의 실천정도를 파악(5점 척도) - 나는 평소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다 - 나는 일상생활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고 있다 - 나는 고효율 전자제품을 우선 구입한다 - 나는 환경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 나는 선거에서 환경공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 탄소세 도입과 같은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산출방법	o 확산단계와 동일하게 산출

\*출처: 지속가능경영원(2008)

### 5) 소비자 성향과 환경주의

환경주의와 소비자 성향을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인지, 이해, 확산,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탈근대사회는 환경주의와 소비자 성향의 두 가지 핵심적인 문화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문제 발생의 메커니즘(정대연, 2004: 108 그림 참조)을 통해 소비자 성향과 이에 기초한 행동은 환경을 위협하고, 환경주의와 이에 기초한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 때문에 이 둘은 문화적 가치체계 측면에서 충돌관계에 있다(정대연, 2004). 환경주의는 친환경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소비자 성향은 이와는 반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1) 소비자 성향

개인의 가치체계에서 소비자 성향이 환경문제의 하위항목에 해당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식과 행동에 대해 인지, 이해, 확산, 행동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소비자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 이해, 확산, 행동의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소비자 성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ullins 등(2004)이 개발한 18개 문항 이외에 아직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척도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 성향을 측정하

기 위한 척도는 Mullins 등(2004)이 개발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표 6>과 같다.

<표 7> 소비자 성향 척도

1. 돈을 자유롭게 쓰고 그 결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좋은 생활이다.
2. 과거 수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물질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3. 나는 나의 제품 구매습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4. 나는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사서 사용해 보고 싶어 한다.
5. 나는 텔레비전, 컴퓨터, 오디오 등을 2~3년마다 업그레이드하기를 좋아한다.
6. 나는 실제 필요 없는 물건도 간혹 산다.
7. 나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돈을 쓴다.
8.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포장이 지나치다.
9. 나는 쇼핑 중독인 것 같다.
10. 물질적 풍요성의 정도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한 요인이다.
11.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낭비가 있다.
12. 물건을 먼저 사고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제도가 필요 이상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이다.
13. 소비재의 종류가 광범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좋게 만들고 있다.
14. 우리의 생활양식 자체가 자원을 많이 소비시키는 양식이다.
15. 세계인구는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16.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너무 중점을 둔 나머지 미래세대에 필요한 것을 너무나 고갈시키고 있다.
17. 만약 중국, 인도, 남미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들 만큼 소비한다면, 세계 환경은 더욱 파괴될 것이다.
18. 내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는 환경에 중요하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 출처: 정대연(2004)

<표 6>에 있는 18개 문항의 내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 아래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           |           |
|-----------|-----------|
| - 매우 동의 5 | - 약간 반대 2 |
| - 약간 동의 4 | - 매우 반대 1 |
| - 모르겠다 3  |           |

## (2) 환경주의

환경주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등장 배경뿐만 아니라 환경주의 이념의 유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성향과 대비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자연에 우위를 둔 행동을 이끄는 가치체계로 단순화 시키도록 하겠다. 이러한 환경주의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Dunlap 등(2000)이 개발한 개정 신환경패러다임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1978년에 개발한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였는데, 2000년에 15개 문항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것은 <표 7>과 같다.

<표 8> 개정 신환경패러다임 척도

1. 현재 인구수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육박하고 있다.
2.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변형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인간이 자연을 간섭하면 종종 재앙이 온다.
4. 인간은 영리하기 때문에 지구를 생존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5. 인간은 심각할 정도로 자연을 남용하고 있다.
6. 만약 적절한 자원이용 방법만 개발한다면 지구의 자연자원은 충분할 것이다.
7. 동식물도 인간만큼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
8. 자연은 현대 산업국가의 충격에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 균형을 가지고 있다.
9. 인간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 오늘날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생태위기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
11. 지구는 한정된 자원과 방을 가진 우주선과 같다.
12.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13. 자연의 균형은 매우 섬세하고 쉽게 깨어진다.
14. 인간은 자연의 통제를 위해 자연의 작동원리를 결국 알게 될 것이다.
15.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곧 심각한 생태적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출처: 정대연(2004)

환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표 7>과 기후변화의 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표 5>의 구성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행동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기후변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며, 지수를 산출하면서 환경주의와는 다르게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률을 적용하였다. 조정률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행동과 일반 환경주의 가치체계와는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에 있는 15개 문항의 내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 소비자 성향과 같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6)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

이 연구는 제주도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 이해, 확산, 행동의 단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기후변화 인식 수준과 행동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문에 인지지수, 이해지수, 확산지수, 행동지수가 종속 변인이 된다. 이들 종속변인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 월 수입, 종교를 선정하였다.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 중에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은 인간의 의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분석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만을 말하는 것이다. 먼저 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적으로 더 활동적이고, 지역사회 문제에 더 관여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수준도 더 높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주장이 있다. 반대로 남성은 직업과 경제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의 질에 대해 여성보다 덜 관심을 가진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은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종희 외, 2004). 이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성별과의 관계는 연구들 간에 일관성 있는 관계유형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15)</sup>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

15) 양종희(2004)는 연구결과들이 성별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성 역할의 차별적 사회화이론, 지식수준의 차이와 제도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설, 경제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설,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한 차이가설, 성별 부모 역할의 차이가설 등이다. 이러한 분류는 많은 연구결과에서 성별이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을 알 수 있다.

구결과에 대해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연구결과들이 일관성 있는 분석결과는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종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불교는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자연관이기에 오늘날 환경문제 유발과는 거리가 멀지만, 기독교의 인간 우위적 자연관이 인간의 자연 수탈로 이어졌으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개발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정대연, 2004). 반면에 이와는 반대의 결과와, 영향의 많고 적음에 대한 주장들이 각기 나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기후변화 관련하여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가를 검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분석이다. 이 분석에서 종교는 없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로 범주화하였다.

## V. 분석결과

###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표본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을 위해 전체 300명 표본을 빈도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9> 표본의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

특성	구분	사례 수	%	특성	구분	사례 수	%
성	남자	150	50.0	직업 형태	사무·관리직	70	23.3
	여자	150	50.0		서비스·판매·영업직	64	21.3
연령	20~29세	68	22.7		전문직·기술직	51	17.0
	30~39세	64	21.3		농/림/축/수산업	39	13.0
	40~49세	66	22.0		가정주부	25	8.3
	50~59세	50	16.7		학생	38	12.7
	60세 이상	52	17.3		무직	13	4.3
거주 지역	제주시	166	55.3		교육 수준	중졸이하	52
	서귀포시	46	15.3	고등학교 졸업		70	23.3
	구북제주군	50	16.7	대학교 재학·졸업		178	59.3
	구남제주군	38	12.7	가구 월수입	99만원 이하	18	6.0
종교	없다	120	40.0		100~149만원	34	11.3
	불교	117	39.0		150~199만원	40	13.3
	기독교	60	20.0		200~299만원	57	19.0
	기타	3	1.0		300~399만원	78	26.0
					400~499만원	37	12.3
			500만원 이상	36	12.0		

앞서 표본추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모집단의 구성을 지역, 연령, 성 구성에 기초한 할당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이 때문에 <표 8>에 있는 전체 표본 가운데 성, 연령, 거주지역의 응답자 수는 모집단의 구성비율과 같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시이고, 구(舊)북제주군과 구(舊)남제주군은 농촌이다.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범주화하면, 300명의 표본 가운데 도시 거주자가 70.7%이고, 농촌 거주자가 29.3%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범주화하면, 제주시 거주자가 72.0%이고, 서귀포시 거주자가 28.0%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40.0%로 가장 많았고, 불교 신자가 39.0%, 기독교 신자(천주교 신자를 포함)가 20.0%, 기타 종교 신자가 1.0%이다. 직업 별로는 사무·관리직이 23.3%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영업직이 21.3%, 전문·기술직이 17.0%, 농/림/축/수산업이 13.0%, 학생이 12.7%, 가정주부가 8.3%이고, 직업이 없다는 응답은 4.3%이다.

교육수준별로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비율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인 59.3%이고, 고등학교 졸업이 23.3%이고, 중학교 졸업 이하가 17.3%이다. 월수입별로는 300~399만원이 26.0%로 가장 많았고, 200~299만원이 19.0%, 150~199만원이 13.3%, 400~499만원이 12.3%, 500만원 이상이 12.0%, 100~149만원이 11.3%이고, 99만원 이하는 6.0%로 가장 적은 응답을 보였다.

## 2. 소비자 성향과 환경주의

### 1) 소비자 성향

앞서 매개변인의 조작화 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지수, 이해지수, 확산지수, 행동지수의 매개변인으로서 <표 6>에 있는 18개 문항을 5점 척도에 기초하여 소비자 성향의 가치체계를 측정하였다. 이 18개 문항이 소비자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타당도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알파계수(alpha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알파계수가 0.706으로 나왔다. 이것은 이 18개 문항이 소비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알파계수는 하나의 복합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들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내적 타당도를 의미하고, 0.500 이상이면 내적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정대연, 2004).<sup>16)</sup>

먼저 소비자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표 6>에 있는 18개 문항의 응답점수를 모두 합하여 소비자 성향을 하나의 복합변인으로 만들었다. 18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복합변인으로서의 소비자 성향의 척도 점수는 18점에서 90점의 분포를 갖는다.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시켜 거주지역, 성, 연령,

16) 알파계수의 개념과 산출방법은 정대연, 1997b: 444 참조.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별로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하고, 독립 변인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90% 유의도 수준에서 성, 종교, 직업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거주지역(도시, 농촌),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은 90% 이상 유의도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10>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소비자 성향 수준에 미치는 영향

특성	구분	평균치 (100점 만점)	특성	구분	평균치 (100점 만점)
거주지역	도시	62.3	교육수준	중졸이하	58.1
	농촌	58.1		고등학교	59.2
	P=0.003, V=0.397			대학교	62.6
가구 월수입	99만원 이하	47.4	연령	P=0.004, V=0.378	
	100 ~ 149만원	60.1		20 ~ 29세	62.0
	150 ~ 199만원	63.0		30 ~ 39세	62.1
	200 ~ 299만원	64.0		40 ~ 49세	62.1
	300 ~ 399만원	61.6		50 ~ 59세	63.0
	400 ~ 499만원	61.9		60세 이상	55.3
	500만원 이상	60.2		P=0.011, V=0.377	
	P=0.028, V=0.408				

전체평균 = 61.0/ R<sup>2</sup> = 0.157

<표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철저한 소비지향의 가치체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제주도민의 소비지향 가치체계의 수준은 61.0이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촌 보다는 도시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월수입 별로는 가구 월수입이 많을수록 소비자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성향의 가치체계가 높은 사람은 도시에 살면서, 50대의 연령층, 대졸의 학력자 중에 가구 월수입이 200만원 대의 사람들이다. 유의도 수준을 보면 소비자 성향의 차이에서 거주지역이 0.003으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0.004이고, 연령은 0.011이다. 반면 가구 월수입별 소비자 성향의 차이는 0.028로서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유의도 수준을 보인다.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이 소비자 성향의 수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크레머 V(Cramer V: V)를 산출하였다. 크레머 V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명명변인이든, 서열변인이든, 동간변인이든, 비율변인이든 구애받지 않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 산출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크레머 V는 -값이 없기 때문에 두 변인의 관계의 정도만 알려줄 뿐 관계의 방향은 알려주지 않는다. V값을 제곱하면 그 값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설명되는 변량(explained variance), 즉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다(정대연, 1992).

따라서 <표 9>에 기초하면 가구 월수입이 소비자 성향의 수준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은 16.6%( $V^2=0.408^2=0.166$ )이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이 15.8%, 교육수준이 14.3%, 연령이 14.2%의 순서이다. 소비자 성향의 수준 결정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위의 분석은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이 개별적으로 소비자 성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소비자 성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의 변인에 성, 종교, 직업을 포함하여 독립변인으로 하고, 소비자 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multiple correlation of determination:  $R^2$ )를 산출하였다.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는 하나의 종속변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변량 가운데 독립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다(정대연, 1997). 독립변인들에 의해 소비자 성향이 설명되는 정도, 즉 설명력이다.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선택한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진다.

소비자 성향의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거주지역, 성, 종교, 직업은 모조변인(dummy variable)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  $R^2$ 은 0.157이 나왔다. 따라서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소비자 성향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15.7%이다. 소비자 성향의 수준은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배경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84.3%(100-15.7)가 결정된다.

다음으로 소비자 성향의 18개 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기법은 소비자 성향의 18개 문항에 대한 응답들 가운데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한데 묶어 소비자 성향 가치체계의 핵심적 범주를 추출해 준다. 요인분석의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인방법(principal

components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특정치 1.00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변수의 요인에 대한 연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베리막스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요인방법은 측정문항들의 모든 변량은 추출될 공통요인(common factor)에 실려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오차변량이나 특수변량을 고려하지 않고, 베리막스회전은 범주를 추출할 때 범주들 간에 상관관계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각 범주가 반영하는 의미의 독자성을 높여주고, 특정치 1.000 이하인 범주는 하나의 문항만 큼도 설명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정대연, 1992). 각 범주에 속하는 측정 문항은 요인부하치가 0.400 이상인 것으로 하였다. 2개 이상의 범주에 요인부하치가 0.400 이상인 문항은 요인부하치가 큰 쪽의 범주에 편입시켰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1> 소비자 성향의 요인분석

구성 범주	범주 1	범주 2	범주 3	범주 4	전 체
구성 문항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4, 5, 6	1, 7, 8, 18	2, 3	
특정치	5.69	2.63	1.46	1.06	10.84
전체변량의 백분율	31.6	14.6	8.1	5.9	60.3
공통변량의 백분율	52.4	24.3	13.5	9.8	100.0
알파계수	0.895	0.770	0.556	0.599	0.706
구성 범주의 의미	구조적 소비주의	자발적 소비주의	쾌락추구적 소비주의	의식적 소비주의	

비고: 각 범주에 속하는 문항은 <표 6>에 있는 문항의 번호이다.

소비자 성향의 가치체계를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0>과 같이 크게 네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범주에 속하는 문항들의 알파계수는 ‘범주 1’이 0.895이고, ‘범주 2’는 0.770이고, ‘범주 3’은 0.556이고, ‘범주 4’는 0.599이다. 전체적으로 소비자 성향의 가치체계로서 18개 문항의 타당도는, 앞서 이미 분석했던 바와 같이 0.706이다. 따라서 소비자 성향의 각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은 그 범주의 구성문항으로서 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주 1’의 설명력은 27.8%로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소비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어 “구조적 소비주의”로 명명하였다. ‘범주 2’의 설명력은 13.1%로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소비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반영하여 “자발적 소비주의”라고 하였다. ‘범주 3’의 설명력은 10.3%로 개인적인 쾌락추구를 위해 소비를 한다는 의미를 반영하여 “쾌락추구적 소비주의”라고 하였다(정대연, 2004). ‘범주 4’의 설명력은 9.0%로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소비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구매습관이 한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여 소비를 한다는 의미를 반영하여 “의식적 소비주의”로 명명하고자 한다.<sup>17)</sup>

## 2) 환경주의

<표 7>에 있는 15개 문항을 5점 척도에 기초하여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측정하였다. 300명 표본에서 이들 15개 문항의 알파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알파계수가 0.558이었다. 이것은 이들 15개 문항이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 성향 분석과 마찬가지로 환경주의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표 7>에 있는 환경주의 측정 문항 15개의 응답점수를 모두 합하여 환경주의를 하나의 복합변인으로 만들었다. 1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복합변인으로서의 환경주의 척도 점수는 15점에서 75점의 분포를 갖는다.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시켜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독립변인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90% 유의도 수준에서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거주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성, 가구 월수입은 90% 이상 유의도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17)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의 범주화는 정대연(2004)의 범주화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표 12>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환경주의 가치체계 수준에 미치는 영향

특성	구분	평균치 (100점 만점)	특성	구분	평균치 (100점 만점)
가구 월수입	99만원 이하	58.5	거주지역	제주시	64.9
	100 ~ 149만원	64.0		서귀포시	68.4
	150 ~ 199만원	66.9		P=0.006, v=0.466	
	200 ~ 299만원	67.4		성	남자
	300 ~ 399만원	65.9	여자		64.4
	400 ~ 499만원	66.6	P=0.008, V=0.330		
	500만원 이상	67.0			
	P=0.022, V=0.332				

전체 평균 = 65.9/ R<sup>2</sup> = 0.310

<표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철저한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제주도민의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수준은 65.9이다. 앞 절에서 제주도민들의 소비자 성향 수준(61.0)과 비교하면 제주도민들은 소비자 성향보다 환경주의 수준이 약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변인별로는 거주지역에서는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가구 월수입 별로는 월수입이 많을수록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높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높은 사람은 서귀포에 사는 남자의 가구 월수입이 200만원대의 사람들이다. 유의도 수준을 보면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거주지역과 성은 각각 0.006, 0.008로서 높다. 반면에 가구 월수입의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차이는 0.022로서 상대적으로 낮다.

거주지역, 성, 가구 월수입이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수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크레머 V를 산출하였다. 크레머 V에 기초하면 거주지역이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수준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은 21.7%(V<sup>2</sup>=0.466<sup>2</sup>=0.217)이다. 성과 가구 월수입은 약 11.0%로 거주지역보다 낮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의 분석은 거주지역, 성, 가구 월수입이 개별적으로 환경주의 가치체계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환경주의 가치체계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에서 거주지역, 성, 종교, 직업은 모조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  $R^2$ 은 0.351로 나왔다. 따라서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환경주의 가치체계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35.1%이다. 이것을 앞에서 분석한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소비자 성향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15.7%)과 비교해 보면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은 소비자 성향보다는 환경주의 가치체계 수준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15개 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기법은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15개 문항에 대한 응답들 가운데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한데 묶어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핵심적 범주를 추출해 준다. 요인분석의 기법은 주요인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특정치 1.00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변수의 요인에 대한 연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베리막스회전법을 이용하였다. 각 범주에 속하는 측정 문항은 요인부하치가 0.400 이상인 것으로 하였다. 2개 이상의 범주에 요인부하치가 0.400 이상인 문항은 요인부하치가 큰 쪽의 범주에 편입시켰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3>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요인분석

구성 범주	범주 1	범주 2	범주 3	전 체
구성 문항	1, 5, 6, 7, 9, 11, 13, 14, 15	2, 4, 8, 12	3, 10	
특정치	4.21	2.42	1.48	8.11
전체변량의 백분율	28.1	16.1	9.8	54.0
공통변량의 백분율	52.0	29.8	18.2	100.0
알파계수	0.840	0.674	0.633	0.558
구성 범주의 의미	자연의 균형 파괴	인간의 자연지배	인간의 생태위기	

비고: 각 범주에 속하는 문항은 <표 7>에 있는 문항의 번호이다.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2>와 같

이 크게 세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범주에 속하는 문항들의 알파계수는 ‘범주 1’이 0.840이고, ‘범주 2’는 0.674이고, ‘범주 3’은 0.633이다. 전체적으로 환경주의 가치체계로서 15개 문항의 타당도는, 앞서 이미 분석했던 바와 같이 0.558이다. 따라서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각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은 그 범주의 구성문항으로서 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주 1’의 설명력은 28.1%로 현재 인간의 활동이 과다하여 자연의 원래 상태가 파괴될 것이라는 데 대해 염려하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어 “자연의 균형파괴”로 명명하였다. ‘범주 2’의 설명력은 16.1%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어 “인간의 자연지배”라고 하였다(정대연, 2004). ‘범주 3’의 설명력은 9.8%로 인간이 자연을 간섭한 결과 발생하는 자연 파괴 현상을 인간의 생태위기에 대한 환경주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어 “인간의 생태위기”로 이름 붙였다.

### 3. 기후변화 인식지수

#### 1)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91.7%로 높게 나타났지만,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 결과 <표 13>에서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14> 기후변화 현상 인지 문항 결과

문항	구분	사례 수	%	문항	구분	사례 수	%
기후변화 현상 인지 여부	예	275	91.7	기후변화 현상 인지 정도	전혀 모른다	9	3.0
	아니오	25	8.3		별로 모른다	46	15.3
					보통이다	94	31.3
					조금 알고 있다	139	46.3
					매우 잘 안다	12	4.0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별로 모르는 사람이 18.3%이고, 보통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31.3%, 조금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50.3%이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인지 정도를 낮은 인지(전혀 모른다, 별로 모른다), 보통 인지(보통이다), 높은 인지(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안다)로 범주화하였다.

인지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표 13>에 있는 인지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독립변인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90% 유의도 수준에서 거주지역, 성, 종교, 직업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의 독립변인은 90% 이상 유의도 수준에서 인지지수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5>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인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특성	구분	평균치 (100점 만점)	특성	구분	평균치 (100점 만점)
연령	20 ~ 29세	70.9	가구 월수입	99만원 이하	60.0
	30 ~ 39세	66.6		100 ~ 149만원	61.8
	40 ~ 49세	68.8		150 ~ 199만원	65.0
	50 ~ 59세	68.0		200 ~ 299만원	66.0
	60세 이상	56.9		300 ~ 399만원	68.0
	P=0.001, V=0.193			P=0.002, V=0.140	
교육수준	중졸이하	54.2	400 ~ 499만원	69.7	
	고등학교	66.9	500만원 이상	71.1	
	대학교	70.1			
	P=0.000, V=0.221				

전체평균 = 66.6/ R<sup>2</sup> = 0.153

<표 14>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인지지수를 최고 100이라고 했을 때, 제주도민들의 인지지수는 66.6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인식지수는 기본적으로 60을 기준으로 한다(지속가능경영원, 2008).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인지지수는 기본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독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20대, 40대, 50대는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는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특히 중졸이하의 학력에서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를 보인다. 가구월수입 별로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높은 인지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가구 월수입이 높은 사람이 높은 인지를 보인다.

인지지수와 매개변인인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은 요인분석의 범주별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6>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인지지수에 미치는 영향

환경주의 범주	베타계수	유의확률(p)	소비자 성향 범주	베타계수	유의확률(p)
자연의 균형파괴	0.107	0.063	구조적 소비주의	0.048	0.403
인간의 자연지배	-0.040	0.487	자발적 소비주의	0.141	0.014
인간의 생태위기	0.126	0.029	쾌락추구적 소비주의	0.046	0.427
			의식적 소비주의	0.018	0.749
	V=0.335	P=0.034		V=0.391	P=0.115

<표 15>의 결과에 기초하면, 소비자 성향의 네 범주 중에서 자발적 소비주의는 인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 성향 전체적으로 보면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환경주의 가치체계는 세 범주 중에서 자연의 균형파괴와 인간의 생태위기 범주는 인지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환경주의 가치체계 전체적으로 보면 인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유의도 수준을 보면, 인지지수에 대해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은 각각 0.001, 0.000, 0.002로서 높다. 반면에 환경주의 가치체계는 0.034로서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를 것이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 인지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크레머 V를 산출하였다. 크레머 V에 의하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

지수준이 결정되는 데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2.7%( $V^2=0.193^2=0.027$ )이고,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4.8%, 가구 월수입이 미치는 영향은 1.1%,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미치는 영향은 11.2%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의 인지는 환경주의 가치체계에 의해서 가장 많이 결정되고, 다음으로 교육수준, 연령, 가구 월수입의 순서로 결정된다. 그러나 환경주의 가치체계에 의한 영향만 10%를 넘고, 교육수준, 연령, 가구 월수입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인지수준은 교육수준, 연령, 가구 월수입 이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특히 가구 월수입이 인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1%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가구 월수입은 인지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인지 수준을 결정하는 영향은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은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인지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지 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에서 거주지역, 성, 종교, 직업은 모조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  $R^2$ 은 0.153으로 나왔다. 따라서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인지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15.3%이다.

## 2)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이해지수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원인(원인지수), 결과(결과지수), 대응노력(대응지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먼저 각각의 지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주도민들의 기후변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이해 정도는 76.1로 나타났으며, 결과에 대한 이해 정도는 73.0이고, 대응 노력에 대한 이해 정도는 37.3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원인과 결과는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이지만, 대응 노력에 대한 이해 정도는 상당히 낮다. 각각의 지수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원인, 결과, 대응노력 각각의 4개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빈도를 합산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조정률을 적용 하였다.<sup>18)</sup> 이해지

수는 원인지수, 결과지수, 대응지수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이해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원인지수, 결과지수, 대응지수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독립변인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90% 유의도 수준에서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수준, 월수입은 90% 이상 유의도 수준에서 이해지수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7>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이해 수준에 미치는 영향

특성	구분	평균치 (100점 만점)	특성	구분	평균치 (100점 만점)
가구 월수입	99만원 이하	54.7	교육수준	중졸이하	56.9
	100 ~ 149만원	62.3		고등학교	62.5
	150 ~ 199만원	60.0			
	200 ~ 299만원	61.5			
	300 ~ 399만원	62.8		대학교	63.5
	400 ~ 499만원	64.3			
	500만원 이상	65.1			
	P=0.022, V=0.229			P=0.012, V=0.248	

전체 평균 = 62.1/ R<sup>2</sup> = 0.193

<표 1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해지수를 최고 100이라고 했을 때, 제주도민의 이해지수는 62.1이다. 인지지수에 비해 낮은 이해지수를 보이지만 기본점수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였으며, 특히 중졸이하의 학력에서는 인지지수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이해를 보인다. 가구 월수입별로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이해수준도 높다. 전체적으로 보면, 2년제 이상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고소득일 때 이해지수는 높다.

18) 이해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모두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의 문항이 기후변화 현상의 원인, 결과, 대응노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원인, 결과, 대응노력 각각의 4개 문항 중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빈도의 합이 각각의 지수가 되는 것이다.

이해지수와 매개변인인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은 요인분석의 범주별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표 17>와 같다.

<표 18>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이해지수에 미치는 영향

환경주의 범주	베타계수	유의확률(p)	소비자 성향 범주	베타계수	유의확률(p)
자연의 균형과괴	0.386	0.000	구조적 소비주의	0.273	0.000
인간의 자연지배	-0.009	0.872	자발적 소비주의	0.097	0.076
인간의 생태위기	-0.029	0.592	쾌락추구적 소비주의	0.019	0.722
			의식적 소비주의	0.197	0.000
	V=0.438	P=0.000		V=0.518	P=0.000

<표 17>에 의하면,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 모두 이해지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소비자 성향의 네 범주 중에서는 구조적 소비주의와 의식적 소비주의가 90% 이상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의식적 소비주의 보다 구조적 소비주의가 이해지수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환경주의 가치체계는 세 범주 중에서 자연의 균형과괴만 인지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의도 수준을 보면,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은 모두 0.000으로 매우 높다. 반면에 교육수준과 가구 월수입은 각각 0.012, 0.022로서 이해지수에 대한 유의도가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크레머 V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성향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수준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은 26.8%(V<sup>2</sup>)이다. 다음으로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19.1%이고, 학력이 6.2%이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수준 결정에 가구 월수입이 미치는 영향은 4.6%로서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가장 낮다.

위의 분석은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이해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해 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에서 거주지역, 성, 종교, 직업은 모조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  $R^2$ 은 0.193으로 나왔다. 따라서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이해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19.3%이다.

### 3) 기후변화에 대한 확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개인참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사회/정치/정책참여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측정으로 확신지수를 산출하였는데, 확신지수는 <표 4>에 있는 6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sup>19)</sup> 이 6개 문항이 확신지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타당도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알파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알파계수는 0.812였다. 이것은 소비자 성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6개 문항이 확신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기초한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으로 범주화 하였다. 개인 행동양식 문항들과 민주시민 행동양식 문항들을 각각 묶어 기후변화에 대한 확신 수준의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확신 수준 문항은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개인 행동양식과 민주시민 행동양식 모두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확신 수준은 각각 3점에서 15점의 분포를 갖게 된다. 이것을 다시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 시켰을 때 개인 행동양식과 민주시민 행동양식의 평균치는 <표 18>, <표 19>, <표 20>와 같다.

19) 확신지수와 행동지수 문항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개인참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사회/정치/정책참여 등)으로의 구분은 지속가능경영원, 2008을 참고하였다.

<표 19> 개별 문항별 확산 수준

확산지수 척도	5점 척도의 평균치
1. 천연가스버스나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4.2
2. 일반 가정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4.1
3. 고효율의 전자제품의 구입 및 교체	3.8
4.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	3.5
5. 선거에서 환경공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후보의 지지	3.3
6. 탄소세 도입과 같은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인정	3.8

<표 20>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의 구성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
1. 천연가스버스나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4.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
2. 일반 가정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5. 선거에서 환경공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후보의 지지
3. 고효율의 전자제품의 구입 및 교체	6. 탄소세 도입과 같은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인정

<표 21>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 수준

구성	5점 척도의 평균치	100점 만점 척도의 평균치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	4.05	81.0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	3.53	70.6
전체 평균	3.79	75.8

<표 19, 20>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고 확산 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제주도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확산 수준은 전체적으로 75.8이다. 이 수치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은 수치이다. 개인 행동양식의 수준은 81.0이고, 민주시민 행동양식의 수준은 70.6으로서 민주시민 행동양식보다 개인 행동양식 수준이 더 높다.

기후변화에 대한 확산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분석으로 <표 4>에 있는 6개 문항으로 확산지수를 산출하였다. 확산지수는 6개 문항의 응답점수를

모두 합하여 하나의 복합변인으로 만들었다. 6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복합변인으로서의 확산지수의 척도 점수는 6점에서 30점의 분포를 갖는다.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조정률을 적용하여 확산지수를 계산하였다.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시켜서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독립변인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90% 유의도 수준에서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거주지역(제주시, 서귀포시)은 90% 이상 유의도 수준에서 확산지수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2>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확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

특성	구분	평균치(100점 만점)
거주지역	제주시	58.9
	서귀포시	65.5
P=0.000, V=0.423		

전체 평균 = 60.7/ R<sup>2</sup> = 0.214

<표 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확산지수를 최고 100이라고 했을 때, 제주도민의 확산지수는 60.7이다. 제주도민은 인지지수, 이해지수, 확산지수 모두 60 이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거주지역은 서귀포시 지역이 제주시 지역보다 확산 수준이 높다.

확산지수와 매개변인인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은 요인분석의 범주별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3>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확산지수에 미치는 영향

환경주의 범주	베타계수	유의확률(p)	소비자 성향 범주	베타계수	유의확률(p)
자연의 균형과괴	0.439	0.000	구조적 소비주의	0.342	0.000
인간의 자연지배	-0.030	0.578	자발적 소비주의	0.051	0.343
인간의 생태위기	-0.035	0.502	쾌락추구적 소비주의	-0.112	0.037
			의식적 소비주의	0.212	0.000
	V=0.375	P=0.000		V=0.413	P=0.000

<표 22>의 결과에 따르면,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 모두 유의도 0.000으로 확신지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소비자 성향의 네 범주 중에서는 구조적 소비주의와 의식적 소비주의가 90% 이상 유의도 수준에서 확신지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의식적 소비주의 보다 구조적 소비주의가 확신지수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주의 가치체계는 세 범주 중에서 자연의 균형과피만 인지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의도 수준을 보면 거주지역,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은 모두 유의도가 0.000으로서 매우 높다.

거주지역,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크레머 V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거주지역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확신 수준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은 17.8%(V<sup>2</sup>)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성향이 17.1%이고,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확신 수준 결정에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미치는 영향은 14.1%로서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가장 낮다.

위의 분석은 거주지역,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확신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확신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확신 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에서 거주지역, 성, 종교, 직업은 모조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 R<sup>2</sup>은 0.214로 나왔다. 따라서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확신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21.4%이다.

#### 4)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 실천 수준의 측정으로 행동지수를 산출하였는데, 행동지수는 확신지수와 마찬가지로 <표 4>에 있는 6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6개 문항이 행

동지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타당도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알파계수를 산출하였다. 알파계수는 0.715이었다. 이것은 소비자 성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6개 문항이 행동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기초한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4> 개별 문항별 행동 수준

확신지수 척도	5점 척도의 평균치
1. 나는 평소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다	3.09
2. 나는 일상생활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고 있다	3.44
3. 나는 고효율 전자제품을 우선 구입한다	3.30
4. 나는 환경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1.77
5. 나는 선거에서 환경공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2.76
6. 탄소세 도입과 같은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3.27

<표 18>과 <표 23>에 의하면, 확신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제주도민들은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행동에서는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것은 경제발전과 환경문제의 행동 사이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행동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환경단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활동’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특히 개인의 환경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운동에의 참여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중요하다.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환경행동의 종류에 따라, 사회계층에 따라,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다. 환경행동의 종류에 따라서는 행동의 편리성과 행동에 관련된 내재적 만족감의 비중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구도완 외, 2004). 각 개인의 행동 비중에 시간적 비용과 행동의 편리성, 내재적 만족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환경운동에 대한 결과는 제주도민들이 행동의 편리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분석으로 <표 5>에 있는 6개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행동지수는 6개 문항의 응답점수를 모두 합하여 하나의 복합변인으로 만들었다. 6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복합변인으로서의 행동지수의 척도 점수는 6점에서 30점의 분포를 갖는다.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조정률을 적용하여 행동지수를 계산 하였다.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시켜서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독립변인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90% 유의도 수준에서 성, 종교,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거주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연령, 직업은 90% 이상 유의도 수준에서 행동지수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5>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특성	구분	평균치 (100점 만점)	특성	구분	평균치 (100점 만점)
거주지역	제주시	45.3	직업	사무·관리직	45.2
	서귀포시	51.5		서비스·판매·영업직	47.7
	P=0.000, V=0.355			전문직·기술직	44.7
연령	20~29세	45.5		농/림/축/수산업	48.4
	30~39세	45.0		가정주부	47.0
	40~49세	47.6		학생	48.8
	50~59세	50.0		무직	52.9
	60세 이상	48.4		P=0.027, V=0.286	
	P=0.021, V=0.261			전체평균 = 47.0/ R <sup>2</sup> = 0.209	

<표 2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행동지수를 최고 100이라고 했을 때, 제주도민의 행동지수는 47.0이다. 제주도민들의 인지지수, 이해지수, 확신지수가 모두 60 이상인 것에 반해 행동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기본점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보다 서귀포시 지역의 행동지수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은 농/림/축/수산업이 높은 행동지수를 나타낸다.

매개변인인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은 요인분석의 범주별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6>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행동지수에 미치는 영향

환경주의 범주	베타계수	유의확률(p)	소비자 성향 범주	베타계수	유의확률(p)
자연의 균형파괴	0.388	0.000	구조적 소비주의	0.261	0.000
인간의 자연지배	-0.055	0.303	자발적 소비주의	0.055	0.293
인간의 생태위기	-0.117	0.028	쾌락추구적 소비주의	-0.190	0.000
			의식적 소비주의	0.306	0.000
	V=0.375	P=0.000		V=0.413	P=0.000

<표 25>의 결과에 따르면,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 모두 유의도 0.000으로 행동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소비자 성향의 네 범주 중에서는 구조적 소비주의, 쾌락추구적 소비주의, 의식적 소비주의가 90% 이상 유의도 수준에서 행동지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의식적 소비주의가 구조적 소비주의와 쾌락추구적 소비주의 보다 행동지수의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환경주의 가치체계는 세 범주 중에서 자연의 균형파괴와 인간의 생태위기가 90% 이상 유의도 수준에서 행동지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자연의 균형파괴와 인간의 생태위기 범주 중에 인간의 생태위기 보다는 자연의 균형파괴가 행동지수의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유의도 수준을 보면 행동지수에 대해 거주지역,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은 0.000으로 매우 높고, 직업과 연령은 각각 0.027, 0.021로서 상대적으로 유의도 수준이 낮다.

거주지역, 연령, 직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크레머 V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성향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 수준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은 19.5%이다. 다음으로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12.9%이고, 거주지역이 12.6%, 직업이 8.2%이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 수준 결정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6.8%로서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가장 낮다.

위의 분석은 거주지역, 연령, 직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행동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행동 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에서 거주지역, 성, 종교, 직업은 모조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  $R^2$ 은 0.209로 나왔다. 따라서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행동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20.9%이다.

앞에서 분석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각각의 인식지수(인지, 이해, 확신, 행동)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인지지수(15.3%), 이해지수(19.3%), 확신지수(21.4%), 행동지수(20.9%)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은 확신지수의 수준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행동지수, 이해지수, 인지지수의 순서이다.

#### 4. 기후변화 인식지수의 관계

##### 1) 인지, 이해, 확신, 행동 간의 관계적 맥락

기후변화 인식지수의 관계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지수들 간에 부분상관관계 (partial correlation)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른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여 순수한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순상관관계 대신 부분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7> 기후변화 인식지수들 간의 부분상관관계

기후변화 인식지수		인지지수	이해지수	확신지수	행동지수
인지지수	상관계수(R)	1.000	0.281	-0.064	0.016
	P	-	0.000	0.276	0.783
이해지수	상관계수(R)	-	1.000	0.276	0.182
	P	-	-	0.000	0.002
확신지수	상관계수(R)	-	-	1.000	0.419
	P	-	-	-	0.000
행동지수	상관계수(R)	-	-	-	1.000
	P	-	-	-	-

<표 26>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 인식지수의 4가지 변인 인지, 이해, 확신, 행동지수는 인지와 이해, 이해와 확신, 이해와 행동, 확신과 행동의 4범주에만 0.05이상의 유의도 수준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 관계적 맥락을 보면 제주도민들은 인지지수가 높을수록 이해지수가 높고, 이해지수가 높을수록 확신지수와, 행동지수가 높고, 확신지수가 높을수록 행동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기후변화의 확신과 행동으로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제주도민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까지 인식하는 사람들은 대응행동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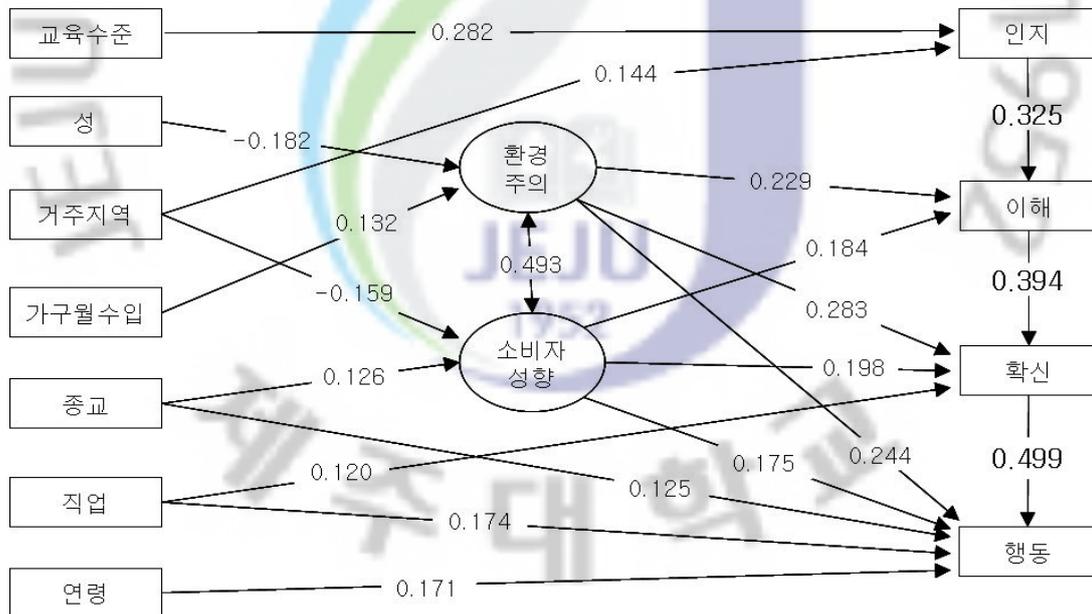
기후변화 인식지수의 관계적 맥락에서 관계의 정도를 보면 확신지수와 행동지수 간에 가장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인지지수와 이해지수 간의 관계이고, 다음으로 이해지수와 확신지수 간의 관계이고, 이해지수와 행동지수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 2) 기후변화 인식지수 형성의 메커니즘

앞선 분석에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크레머 V 계수를 가지고 개별 변인별로 분석하였고, 중다상관관계 결정계수를 가지고 이들 개별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기후변화 현

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 거주지역(도시와 농촌),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하였다. 경로분석에서 성은 모조변인으로 처리하였으며, 거주지역은 도시를 1, 농촌을 2로 가중치를 두어 정적인 관계일 경우에는 농촌일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는 연속적 명명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종교도 거주지역과 마찬가지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1, 종교를 가진 사람을 2로 가중치를 두어 연속적 명명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직업은 통상적인 직업 위세를 바탕으로 전문·기술직을 1, 사무·관리직을 2, 서비스·판매·영업직을 3, 농/림/축/수산업을 4, 가정주부를 5, 대학생을 6, 무직을 7로 하여 연속적 명명변인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90% 이상 유의도 수준을 보인 변인들의 경로모형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 수준 형성의 메커니즘



<그림 7>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 성,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소비자 성향, 환경주의 가치체계는 직접 경로 또는 간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인식 수준의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변인별로 보면, 교육수준은 직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의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의 수준을 높게 한다. 성별은 간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인식 수준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고, 여자가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높이고,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확산, 행동의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거주지역은 직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의 수준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 성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확산, 행동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 일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의 수준을 높게 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 일수록 소비자 성향이 낮고, 소비자 성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확산, 행동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 가구 월수입은 간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인식 수준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고, 가구 월수입이 많을수록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높이고,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확산, 행동의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종교는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인식 수준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일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의 수준을 높게 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일수록 소비자 성향을 높이고, 소비자 성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확산, 행동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 직업은 직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확산과 행동의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통상적인 직업위세가 낮은 사람일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확산과 행동의 수준을 높게 한다. 연령은 직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의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의 수준을 높게 한다.

환경주의 가치체계는 성, 가구 월수입, 소비자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가치체계의 극에 위치한 소비자 성향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제주도민들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모순주의자’와 ‘주변인’의 문화적 가치체계 유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대연, 2004). 환경주의 가치체계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확산, 행동의 수준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즉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확산, 행동의 수준이 높아진다. 소비자 성향은 거주지역, 종교, 환경주의 가치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확신, 행동의 수준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즉 소비자 성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 확신, 행동의 수준이 높아진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의 수준은 두 개의 직접 경로(거주지역과 교육수준)를 통해 형성된다. 두 개의 경로 가운데 거주지역 보다는 교육수준이 직접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 반면, 이해의 수준은 두 개의 간접 경로(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를 통해 형성된다. 이 두 개의 간접 경로 가운데 소비자 성향 보다는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확신의 수준은 한 개의 직접 경로와 두 개의 간접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 한 개의 직접 경로는 직업이며, 두 개의 간접 경로는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다. 이 세 경로 가운데 성과 가구 월수입이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확신의 수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거주지역과 종교가 소비자 성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신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다. 직업은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에 비해 확신의 수준 형성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의 수준은 세 개의 직접 경로와 두 개의 간접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 세 개의 직접 경로는 연령, 종교, 직업이고, 두 개의 간접 경로는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다. 이 다섯 개의 경로 가운데 성과 가구 월수입이 환경주의 가치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의 수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거주지역과 종교가 소비자 성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 다음으로 직업의 직접 영향, 연령의 직접 영향, 종교의 직접 영향 순서로서, 종교의 직접 영향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약하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 이해, 확신, 행동의 관계는 모두 정적 관계로서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이해 수준이 높고,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 수준이 높고, 확신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 수준이 높다.

<그림 7>에서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는 변인 간 관계의 정도, 관계의 방향, 그리고 이 관계들의 메커니즘은 알려 주지만 각 변인이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 이해, 확신, 행동의 수준 형성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은 알려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림 7>에 있는 경로계수에 기초하여 성,

가구 월수입, 거주지역, 종교, 교육수준, 직업, 연령,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직접 경로 및 간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 이해, 확산, 행동의 수준을 형성시켜 주는 전체 영향력을 산출하였다. 이 전체 영향력을 총효과(total effect)라고 한다. 총효과는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와 비인과적 효과(non-causal effect)로 구성되고, 인과적 효과는 다시 직접 효과(kirect effect)와 간접 효과(indirect effect)로 구성된다(정대연, 1992).

이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계수에 기초하여 성, 가구 월수입, 거주지역, 종교, 교육수준, 직업, 연령,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 수준의 형성에 미치는 총효과를 분석하였다(정대연, 2004).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8> 각 변인이 기후변화 인식 수준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

변인	인지				이해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총효과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교육수준	0.282	-	-	0.282	-	-	-	-
성	-	-	-	-	-	0.059	0.008	0.067
거주지역	0.144	-	-	0.144	-	0.047	0.006	0.053
가구 월수입	-	-	-	-	-	0.042	0.008	0.050
종교	-	-	-	-	-	0.037	0.006	0.043
직업	-	-	-	-	-	-	-	-
연령	-	-	-	-	-	-	-	-
환경주의	-	-	-	-	0.229	0.091	-	0.320
소비자 성향	-	-	-	-	0.184	0.113	-	0.297
변인	확신				행동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총효과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교육수준	-	-	-	-	-	-	-	-
성	-	0.070	0.009	0.079	-	0.060	0.008	0.068
거주지역	-	0.053	0.007	0.060	-	0.047	0.006	0.053
가구 월수입	-	0.050	0.009	0.059	-	0.043	0.008	0.051
종교	-	0.043	0.007	0.050	0.125	0.037	0.006	0.168
직업	0.120	-	-	0.120	0.174	-	-	0.174
연령	-	-	-	-	0.171	-	-	0.171
환경주의	0.283	0.098	-	0.381	0.244	0.086	-	0.330
소비자 성향	0.198	0.140	-	0.338	0.175	0.120	-	0.295

<표 27>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의 수준은 총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교육수준이 미치는 효과가 28.2%로서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거주지역이 미치는 효과가 14.4%이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의 수준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비인과적 효과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총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미치는 효과가 32.0%로서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소비자 성향,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의 순서이다.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

은 비인과적 효과가 없고,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의 비인과적 효과는 0.6~0.8% 정도로서 매우 낮고, 인과적 효과가 지배적이다. 인과적 효과 가운데에서도 직접 효과가 지배적이다.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는 직접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총효과에서 환경주의 가치체계·소비자 성향과 차이를 보이고,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소비자 성향보다 직접 효과가 강하다. 반면 간접 효과는 소비자 성향이 환경주의 가치체계보다 강하고,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의 순서이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확신의 수준은 총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미치는 효과가 38.1%로서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소비자 성향, 연령,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의 순서이다.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 직업은 비인과적 효과가 없고,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의 비인과적 효과는 0.7~0.9% 정도로서 매우 낮고, 인과적 효과가 지배적이다.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는 직접 효과가 없고,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총효과와 마찬가지로 직접 효과가 가장 강하고, 소비자 성향, 직업의 순서이다. 간접 효과는 소비자 성향이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환경주의 가치체계,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의 순서이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의 수준은 총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미치는 효과가 33.0%로서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소비자 성향, 직업, 연령, 종교,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의 순서로 강하다.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 직업, 연령은 비인과적 효과가 없고,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의 비인과적 효과는 0.6~0.8% 정도로서 매우 낮고,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적 효과가 지배적이다.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은 직접 효과가 없고,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총효과와 마찬가지로 직접효과가 가장 강하고, 소비자 성향, 직업, 연령, 종교의 순서로 강하다. 간접 효과는 소비자 성향이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환경주의 가치체계,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의 순서로 강하다.

## VI.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인지, 이해, 확신, 행동으로 구분하여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인지, 이해, 확신, 행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인지, 이해, 확신, 행동 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을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환경주의 가치체계는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 중 거주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성, 가구 월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서귀포시의 남자가 가구 월수입이 많을수록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높다. 소비자 성향은 거주지역(도시, 농촌),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도시에 살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젊은 층에서, 가구 월수입이 많을수록 소비자 성향이 높다.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35.1%와 15.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변인은 소비자 성향보다 환경주의 가치체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 측정을 위한 각각의 인식지수를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 매개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인지지수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 수준이 높았으며, 교육수준과 가구 월수입이 많을수록,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높을수록 인지지수가 높다.

이해지수를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 매개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

다고 나타났다.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은 이해 지수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 교육수준(6.2%)과 가구 월수입(4.6%) 보다는 환경주의 가치체계(19.1%)와 소비자 성향(26.8%)이 이해의 수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확신지수는 거주지역(제주시, 서귀포시),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에서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이 높을수록 확신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주의 가치체계(14.1%)와 소비자 성향(17.1%) 보다는 거주지역(17.8%)이 확신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행동지수는 거주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연령, 직업,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귀포에 살면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높은 연령층에서 행동의 수준이 높다.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자 성향은 인지지수(15.3%)와 이해지수(19.3%) 보다 확신지수(21.4%)와 행동지수(20.9%)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지수들 간에는 인지와 이해, 이해와 확신, 이해와 행동, 확신과 행동 간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의 수준은 인지, 확신, 행동과 모두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해와 행동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낮아 제외했을 때, 인지, 이해, 확신, 행동은 단계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인식지수 형성의 메커니즘은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지의 수준은 교육수준의 영향이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거주지역이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미치는 효과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소비자 성향,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의 순서로 강하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확신의 수준은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미치는 효과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소비자 성향, 직업,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 종교의 순서이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행동의 수준은 환경주의 가치체계가 미치는 효과가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소비자 성향, 직업, 연령, 종교, 성, 거주지역, 가구 월수입의 순서로 강하다.

## 2. 결론

본 연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을 제주도민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분석하였으며, 제주도민들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과 행동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행동은 그러한 노력의 바탕이 된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 연령,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거주지역, 직업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지역(제주시, 서귀포시)이 종속변인 각 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를 하나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독특한 생활양식과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환경주의 가치체계와 소비자 성향도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 거주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성, 가구 월수입이 환경주의와 소비자 성향의 가치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지수는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보다는 환경주의 가치체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성향과 유의미한 관계가 많았다. 이 두 변인은 매개 변인으로서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는 다르게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의식은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 이외에 전반적인 사회환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론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기후변화 인식지수 형성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한 결과는 인지→이해(0.325), 이해→확신(0.394), 확신→행동(0.499)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 지수의 수준은 인지지수(66.6), 이해지수(62.1), 확신지수(60.7), 행동지수(47.0)로 나타났다. 환경의식에 대한 구분을 관심·이해의 부분과 태도·행동의 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의식을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을 때(양종희, 1993), 본 연구의 분석결과

는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식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 이해지수는 높게 나타났지만, 태도와 관련된 행동지수가 매우 낮은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확신지수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대응의 필요성까지도 인식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적 수준의 행동양식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이익과 행동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동으로는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수준(사회, 정치, 정책참여 등)의 공동 대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동이 개인적 수준의 행동보다 낮다는 것은 지구단위로 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참여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제주도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지수(인지지수(66.6), 이해지수(62.1), 확신지수(60.7), 행동지수(47.0))를 전국민 인식지수(인지지수(70.3), 이해지수(59.6), 확신지수(52.0), 행동지수(30.9))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지지수를 제외한 이해, 확신, 행동지수는 전국민 인식조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확신지수와 행동지수가 높다는 것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정신·생활 문화와 산업구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이미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서 많은 정부정책들을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의식과 행동에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검증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 다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제주도의 정신·생활 문화는 관광산업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천연의 자연 경관을 중시하는 풍속이 발달 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관광산업은 원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진행해 왔음을 감안할 때, 환경에 대해 민감하고, 의식 속에 태도가 강하게 체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제주 관광산업 이외에도 1차 산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 현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이, 인지지수는 육지보다 낮지만, 나머지 세 지수들이 육지보다 높고, 특히 행동지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기후변화 현상은 환경문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의식의 연구도 환경의식에 기후변화 의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조사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기후변화 의식과 환경의식을 비슷

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더욱 세분화하지 못하였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정치 성향, 계층 의식 등)에 대한 변인 설정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인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잠재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대상자가 처해있는 사회환경을 분석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을 더욱 세분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사질문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지수를 산출해내는 데 사용된 사실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항목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다 심화 한다면, 각 개인이 기후변화 현상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직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노출 빈도에 따라 어떠한 의식과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환경교육의 수준을 교육 횟수나 교육 방법 등으로 측정하여, 환경교육의 수준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면, 교육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자료집

- 강호봉,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제품이미지와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구도완, “한국의 새로운 환경운동,” 『한국사회학』 제29집 여름호, 1995.
- , “1980년대 이후의 한국인의 환경의식,” 『환경정책』 제7집 제2호, 1999a.
- , “한국인의 환경의식과 환경주의 가치,” 「1999년 전기사회학대회」, 1999b.
- 구도완 외,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2004.
- 국립기상연구소, 『기후변화 이해하기』, 기상청, 2008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
- 권현한·김병식·윤석영,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지반환경』 제9권 제3호, 2008.김달수, “기후변화와 문화,” 『지역사회』 통권 49호, 2005.
- 기상청,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Climate Change Handbook』, 2009.
- 김동주, “기후변화 대응과 제주 사회,” 『2008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2008.
- 김두식, “환경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조사연구,” 『한국사회학』 제29집 봄호, 1995.
- , “환경주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태도 연구,” 『ECO』 통권9호, 2005.
- , “한·중·일 3국의 환경의식과 환경행동 비교연구,” 『ECO』 제11권 2호, 2007.
- 김선희, “원론적인 환경주의와 합리적인 환경주의,” 『도시문제』 34호, 1999.
- 김창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남상민·이태동, “「회의적 환경주의자」에 대한 전면 비판 - 통계로 조작해낸 세상과 현실,” 『환경과 생명』 통권 38호, 2003.

- 노형진, 『한글 SPSS 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출판사, 2001.
- 류종렬, “베르그송의 심층의식과 프로이트의 성관심,” 2001.
- 박윤철, “중국사회의 환경의식 대두와 환경운동단체의 조직화,” 『중국학연구』 제 39집, 2007.
- 박현희·오송대, “물질주의 성향과 환경의식이 의복의 재활용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제43권 10호, 2005.
- 박희제, “기후변화 논쟁을 통해 본 환경과학의 역할과 성격,”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2권 1호, 2008.
- 서이중, “환경문제, 환경의식 그리고 대안의 모색,” 『ECO』 제10권 2호, 2006.
- 성숙진·유태균·이선우·이기영,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시그마프레스(주), 2005.
- 성영애, “인천지역 성인소비자의 환경의식과 환경의식적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3호, 2005.
- 신의순·김호석,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집문당, 2005.
- 양인숙, “수도권 거주 직장인들의 환경교육 현황 및 환경의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양인숙·최경희·이상돈, “수도권 거주 직장인들의 환경교육 현황 및 자연환경의식 조사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제15권 제3호, 2006.
- 양종희,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사회적 기반,” 『한국사회학』 제26집 겨울호, 1992.
- 양종희·김두식, “환경의식과 환경행동,”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2004.
- 우수명, 『마우스로 잡는 SPSS』, 인간과 복지, 2006.
- 유두련·심미영·정경옥, “환경교육이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1996.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기후변화협약』, 유넵프레스, 2002.
- 윤순진,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3호, 2002.
- , “사회정의와 환경의 연계, 환경정의,” 『한국사회』 제7집 1호, 2006.

- , “영국과 독일의 기후변화정책,” 『ECO』 제11권 1호, 2007.
- 이수옥, “청주지역 주부들의 환경정의에 관한 의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
- 이학식·임지훈, 『SPSS 12.0 메뉴얼』, 법문사, 2005.
- 장신옥, “종교성과 환경주의의 관계,”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3.
- 정대연, 『사회통계학』, 백산서당, 1992.
- , 『사회과학방법론 사전』, 백의출판사, 1997.
- , 『환경사회학』, 아카넷, 2002.
- 페트릭 플린즈 편저,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3.
- , 『개정판 사회통계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a.
- , 『환경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집문당, 2004b.
- , “기후변화의 일반사항,”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시범사업 개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8.
- , “기후변화가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주발전포럼』 제28호, 2009.
- 정대연·장신옥, “환경문제 발생원인으로서의 인구,”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2005.
- 정유경·김창열·한정숙,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패스트푸드 기업의 환경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1호, 2009.
- 제주발전연구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2009.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시범사업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2008.
- 조운애, “환경의식 척도와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 『환경정책』 제13권 제1호, 2005.
- 조운애, 김경환, “국민환경의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 『자원 환경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003.

- 조진희, “대구시민의 환경의식 조사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관광객의 관광태도, 관광동기 및 환경의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지속가능경영원, 『기후변화 인식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 2008.
- 진국림·오순자·고석찬, “제주시 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의식 조사,” 『한국환경과학회지』 제7권 제12호, 2008.
- 최종문·김승호·최선도, “교육생과 비교육생의 환경교육 및 환경의식에 대한 연구,” 『환경교육』 18권 1호, 2005.
- 피레이지 데니스, “환경주의를 넘어서 -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의 창조,” 『환경과 생명』 통권5호, 1995.
- 한상진, “환경의식과 환경행동의 사회적 기반,” 『ECO』 통권 2호, 2002.
- , 『환경정의의 사회학』, UUP, 2006.
- 허장, “세계화에 대한 환경주의의 대안,” 『ECO』 통권, 2003.
- 허주영, “서울시민의 환경의식과 환경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홍임순, “한국과 독일 학생들의 환경의식 비교 연구,” 『환경교육』 제5권, 1993.
- 환경부, “기후변화에 따른 전국민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007.
- ,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도 조사(2차) 결과보고서,” 2008.
-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008.
- 황기아·천재은, “중학생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 『한국가정과학회지』, 2004.
- Brand·Karl-Werne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Behavior: The Greening of Lifestyles,” Michael Radclift & Graham Wodgate,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 1997.
- Dunlap, R. E., George H. Gallup Jr. and Alec M. Gallup, *Health of the planet: A George H. Gallup Memorial Survey*, Princeton, NJ.: Gallup

- International INstitute, 1993.
- Dunlap, R. E. et al, "Measuring Endorsement of the New Ecological Paradigm: A Revised NEP Scale," *Journal of Social Issues*, 2000.
- Dunlap, R. E. & Robert Emmet Jones, "Environmental Concern: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R. E. Dunlap & William Michelson, 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 Westport, CT: Westwood Press, 2002.
- Milbrath, L. W, *Environmentalism: Vanguard for a New Society*, Albany: SUNNY Press, 1984.
- Morrison, D. & R. Dunlap, "Environmentalism and Elitism: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Environmental Management* 10, 1986.

## 2. 번역서

- Giddens Anthony,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임영일, 박노영 옮김, 한길사, 1981.
-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전환의 시대: 전지구 기후변화의 대외정책과 국가안보 시사』, 기상청 옮김, 2007.
- Godrej Dinyar, 『기후변화, 지구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가』, 김민정 역, 이후(서울), 2007.
- IPCC, 『IPCC 4차 보고서』, 기상청 옮김, 2008.
- Dow Kirstin, Thomas E. Downing,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최영은, 권원태 옮김. 시그마프레스, 2009.

【부 록】

표본조사 질문지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식과 행동 조사 질문지

질문지 번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대학원 논문발표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던 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내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의 의견은 저희들의 분석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짬을 내어 저희들의 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생 김병무 : ☎ 010-4693-2053

▣ 응답자 거주지

제주시			서귀포시	
일도 1동 .. 01	용담 2동.. 08	연 동 .... 15	송산동 .. 20	동홍동 .. 26
일도 2동 .. 02	건입동 .... 09	노형동 .. 16	정방동 .. 21	서홍동 .. 27
이도 1동 .. 03	화북동 .... 10	외도동 .. 17	중앙동 .. 22	대륜동 .. 28
이도 2동 .. 04	삼양동 .... 11	이호동 .. 18	천지동 .. 23	대천동 .. 29
삼도 1동 .. 05	봉개동 .... 12	도두동 .. 19	효돈동 .. 24	중문동 .. 30
삼도 2동 .. 06	아라동 .... 13		영천동 .. 25	예래동 .. 31
용담 1동 .. 07	오라동 .... 14			

제주시 (구북제주군)

한림읍 .... 32	조천읍 .... 35
애월읍 .... 33	한경면 .... 36
구좌읍 .... 34	

서귀포시 (구남제주군)

대정읍 .... 37	안덕면 .... 40
남원읍 .... 38	표선면 .... 41
성산읍 .... 39	

▣ **성별** 남자 .... 1  
 여자 .... 2

▣ **연령** 20 ~ 29세 .... 1    50 ~ 59세 .... 4  
 30 ~ 39세 .... 2    60세 이상 .... 5  
 40 ~ 49세 .... 3

문1. 선생님께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기후변화란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구 전체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2. 선생님께서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별로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안다

문3. 선생님께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겨울이 얼마나 짧아졌다고 알고 계십니까?  
 ① 0~7일            ② 8~15일            ③ 16~23일            ④ 24일 이상            ⑤ 모르겠다

□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몇도 정도 상승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① 0~0.6도            ② 0.6~1.2도            ③ 1.2~1.8도            ④ 1.8도 이상            ⑤ 모르겠다



문7. 기후변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V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천연가스버스나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일반가정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고효율 전자제품 구입 및 교체하기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환경단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선거에서 환경공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탄소세 도입과 같은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탄소세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럽에서는 도입된 반면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등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문9. 선생님의 일상생활에서 아래의 설명에 대해 실천하는 정도를 ( V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별로 실천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실천한다	매우 실천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평소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나는 일상생활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나는 고효율 전자제품을 우선 구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나는 환경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나는 선거에서 환경공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탄소세 도입과 같은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0.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국민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 및 공공기관      ④ 국제사회  
 ⑤ 기업      ⑥ 환경/시민 단체      ⑦ 기타 (                      )

문11. 선생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하고 있다      ② 잘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하고 있다

문12. 아래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 V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동의	매우 동의
<input type="checkbox"/> 현재 인구수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육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변형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인간이 자연을 간섭하면 종종 재앙이 온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인간은 영리하기 때문에 지구를 생존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인간은 심각할 정도로 자연을 남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만약 적절한 자원이용 방법만 개발한다면 지구의 자연자원은 충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동식물도 인간만큼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자연은 현대 산업국가의 충격에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 균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인간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오늘날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생태위기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지구는 한정된 자원과 방울 가진 우주선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자연의 균형은 매우 섬세하고 쉽게 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인간은 자연의 통제를 위해 자연의 작동원리를 결국 알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곧 심각한 생태적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3. 아래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 V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동의	매우 동의
<input type="checkbox"/> 돈을 자유롭게 쓰고 그 결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좋은 생활이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과거 수 년 전부터 한국사람들은 물질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나의 제품 구매습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나는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사서 사용해 보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나는 텔레비전, 컴퓨터, 오디오 등을 2~3년마다 업그레이드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나는 실제 필요 없는 물건도 간혹 산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나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돈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포장이 지나치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나는 쇼핑 중독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물질적 풍요성의 정도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한 요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낭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물건을 먼저 사고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제도가 필요 이상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소비재의 종류가 광범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좋게 만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우리의 생활양식 자체가 자원을 많이 소비시키는 양식이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세계인구는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너무 중점을 둔 나머지 미래세대에 필요한 것을 너무나 고갈시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만약 중국, 인도, 남미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한국사람들 만큼 소비한다면, 세계 환경은 더욱 파괴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내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는 환경에 중요하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

문14. 선생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없다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 종교

문15.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사무직    ② 관리직    ③ 서비스직    ④ 전문직·기술직    ⑤ 판매직  
⑥ 영업직    ⑦ 농/림/축/수산업    ⑧ 가정주부    ⑨ 기타 (      )

문16. 선생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2년제 이상 대학

문17. 선생님을 포함하여 선생님 가족들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49만원 이하    ② 50~99만원    ③ 100~149만원  
④ 150~199만원    ⑤ 200~299만원    ⑥ 300~399만원  
⑦ 400~499만원    ⑧ 500~699만원    ⑨ 700만원 이상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Abstract】**

### **Jeju Citizens' Consciousness on and Behavior towards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big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as well. Most of the current serious natural disasters having occurred are caused by climate change. A lot of studies on people's consciousness on its seriousness and how many people realize about the current state of climate change are in progress.

This thesis is aimed at analyzing the salient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rofiles of Jeju citizens in terms of their consciousness on and behavior towards climate change. The aim is extend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ism as a value-system on the consciousness and behavior being configured.

The consciousness on climate change is a sub-concept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being defined as the extent how strongly people support the necessity against climate change and practice in everyday life on the basis of their knowledge itself and understanding on the knowledg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this thesis a sample survey with 300 adults aged 20 and over was conducte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following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rom the sample survey.

Age, educational attainment, household monthly, residential area, and occupation are the significant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rofiles impacting 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ciousness on climate change. However,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ism were found to be determined significantly by residential area, gender, and household monthly income.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ism were found to be more significant factors

determining the consciousness on climate change tha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onsciousness on climate change as a current hot issues prevailing in all over the world, even though the research was done with special reference to Jeju citizens. Another significance is that this thesis attempt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rofiles, the consciousness on and behavior towards climate change.

